



저작자표시-비영리-변경금지 2.0 대한민국

이용자는 아래의 조건을 따르는 경우에 한하여 자유롭게

- 이 저작물을 복제, 배포, 전송, 전시, 공연 및 방송할 수 있습니다.

다음과 같은 조건을 따라야 합니다:



저작자표시. 귀하는 원저작자를 표시하여야 합니다.



비영리. 귀하는 이 저작물을 영리 목적으로 이용할 수 없습니다.



변경금지. 귀하는 이 저작물을 개작, 변형 또는 가공할 수 없습니다.

- 귀하는, 이 저작물의 재이용이나 배포의 경우, 이 저작물에 적용된 이용허락조건을 명확하게 나타내어야 합니다.
- 저작권자로부터 별도의 허가를 받으면 이러한 조건들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저작권법에 따른 이용자의 권리는 위의 내용에 의하여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이것은 [이용허락규약\(Legal Code\)](#)을 이해하기 쉽게 요약한 것입니다.

[Disclaimer](#)

현 경 실 교수지도
석사학위 청구논문

‘청소년을 위한 음악회’
실태조사 연구

2011

성신여자대학교 교육대학원
교육학과 음악교육전공
김초은

‘청소년을 위한 음악회’

실태조사 연구

현 경 실 교수지도

이 논문을 석사학위논문으로 제출함

2011년 5월

성신여자대학교 교육대학원

교육학과 음악교육전공

김초은

인 준 서

김초은의 석사학위 논문으로 인준함.

심사위원 _____ 인

심사위원 _____ 인

심사위원 _____ 인

성신여자대학교 교육대학원

논 문 개 요

청소년기는 신체적인 성장 뿐 아니라 자아와 정서, 가치관 등이 변화하고 발달하는 시기이다. 이 시기에 경험하는 다양한 음악적 활동은 성숙하고 조화로운 인격형성에 도움을 주기 때문에 교실 안 수업 뿐 아니라 교실 밖 음악회를 통한 직접적인 감상과 음악적 경험이 중요하다. 따라서 연구자는 청소년들이 타이틀을 보고 쉽게 접할 수 있는 ‘청소년을 위한 음악회’에 관심을 갖고, 음악회의 현황을 파악하며, 프로그램 내용을 조사·분석 하였다.

본 연구는 2010년 1월부터 2010년 12월까지 1년을 기준으로 서울·경기 지역의 주요 공연장에서 진행된 152개의 청소년을 위한 음악회 프로그램을 분석하고 실태를 조사한 연구이다. 공연장은 인터넷 예매사이트 인터파크와 티켓링크에서 ‘주요공연장’으로 소개한 곳과 ‘청소년 음악회’를 검색했을때 2010년에 많은 연주가 열린 공연장을 선정하였다.

본 연구의 결론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청소년을 위한 음악회의 연주 현황을 분석한 결과 90%가 청소년들의 방학기간에 집중적으로 열렸다. 음악회 참여가 단순히 방학과제 때 문을 넘어 청소년의 음악적 교육에 필요하고 중요하다는 것을 강조하고, 방학이 아닌 기간에도 언제든지 음악회를 참여할 수 있도록 기획할 필요가 있다.

둘째. 국악 공연은 청소년에게 친근히 다가가기 위해 다양한 프로그램들이 구성되어 있었지만 서양음악에 비해 공연 횟수가 매우 적었다. 국악의 중요성과 함께 홍보를 잘해서 많은 청소년들이 국악공연을 참여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셋째. 연주된 성악곡 중에서는 오페라 아리아가 가장 많았는데 실제 오페라 공연도 청소년을 위한 오페라 공연으로써 더불어 활성화 된다면 단편적으로 아리아만 감상하는 것이 아니라 ‘오페라’라는 장르도 청소년들에게 친근해 질 수 있을 것이다.

넷째. 프로그램을 분석한 결과 시대별, 작곡가별, 곡명별 등 각 유형의 특징에 따라 차이가 있었다. 특히, 성악은 오페라 아리아가 많이 불러졌고, 기악은 소품곡이 많이 연주되었는데 기악은 같은 곡이라도 다양한 형태로 편곡된 연주가 많았다. 편향적이지 않고 다양한 프로그램을 공연하는 것이 중요할 것이다.

다섯째. 공연후기를 통해서 청소년을 위한 음악회 참여가 실제로 관객에게 미치는 영향을 알 수 있었는데, 음악회가 친근하고 재미있었으며 해설이 있어 좋았다는 긍정적인 면은 더욱 향상시키고 관람태도가 어수선하여 음악을 제대로 감상하기 어려웠다는 아쉬운 면은 개선이 필요하다.

본 논문의 결론을 토대로 청소년을 위한 음악회의 현황을 인식하고 공연을 기획하여 관객인 청소년들의 음악회 참여와 음악적 교육에 좀 더 효과적인 도움이 되었으면 한다.

목 차

논문개요

I. 서론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1
2. 연구문제	2
3. 연구절차 및 방법	3
4. 연구의 제한점	4

II. 이론적 배경

1. 청소년기의 음악 감상 교육	5
2. 청소년의 음악 감상 실태	8
3. 청소년 음악회의 종류	12
4. 선행연구	15

III. 청소년을 위한 음악회 분석

1. 청소년을 위한 음악회 현황 분석	
가. 공연장별 연주현황	18
나. 월별 연주현황	20
다. 요일별, 시간대별 연주현황	21
라. 공연 종류와 프로그램 내용	22
2. 청소년을 위한 음악회 공연유형	
가. 서양음악공연	27
1) 성악공연	27
2) 기악공연	28

3) 성악·기악공연	29
나. 국악공연	29
다. 기타공연	29
3. 청소년을 위한 음악회 곡 분석	
가. 서양음악공연 곡 분석	32
1) 성악곡 분석	32
가) 클래식	32
(1) 시대별	32
(2) 작곡가별	33
(3) 장르별	35
(4) 곡명별	36
나) 대중음악	38
2) 기악곡 분석	39
가) 클래식	39
(1) 시대별	39
(2) 작곡가별	40
(3) 곡명별 연주횟수	42
(4) 곡명별 연주형태	44
나) 대중음악	47
나. 국악공연 곡 분석	48
1) 장르별	48
2) 곡명별	50
다. 기타공연 곡 분석	51

IV. 공연후기와 특징이 있는 음악회	
1. 공연후기	
가. 좋았던 점	52
나. 아쉬웠던 점	59
다. 공연후기와 답변	61
2. 특징이 있는 음악회	
가. 다른 영역과 통합한 음악회	63
나. 특별출현 해설자가 있는 음악회	66
다. 주제가 연결되는 음악회	70
V. 결론 및 제언	73
참고문헌	76
ABSTRACT(영문초록)	79

표 목 차

<표 I-1> 평소 즐겨듣는 음악 장르는 무엇입니까?	8
<표 I-2> 클래식 음악회는 1년에 몇 번 정도 갑니까?	8
<표 I-3> 선호하는 음악 장르	9
<표 I-4> 평소에 즐기는 음악	10
<표 I-5> 일년 중 음악회에 가는 횟수	11
<표 II-1> 공연장별 연주 횟수	18
<표 II-2> 월별 연주 횟수	20
<표 II-3> 요일별, 시간대별 연주 횟수	21
<표 II-4> 공연 횟수와 프로그램 내용	23
<표 III-1> 공연 유형	26
<표 III-2> 성악공연 유형	27
<표 III-3> 기악공연 유형	28
<표 III-4> 연주된 총 곡 수	31
<표 IV-1> 시대별 작곡가 수	33
<표 IV-2> 작곡가별 연주 횟수	34
<표 IV-3> 장르별 연주 횟수	35
<표 IV-4> 곡명별 연주 횟수	37
<표 IV-5> 대중음악 연주 횟수	38
<표 V-1> 시대별 작곡가 수	39
<표 V-2> 작곡가별 연주 횟수	41
<표 V-3> 곡명별 연주 횟수	43
<표 V-4> 곡명별 연주 형태	45

<표 V-5> 대중음악 연주 횟수	47
<표 VI-1> 장르별 연주 횟수	49
<표 VI-2> 곡명별 연주 횟수	50
<표 VII-1> 주제별 프로그램	71

그림목차

<그림-1> 감상 후 변화가 있는가?	7
<그림-2> 얼마나 변화 있었나?	7
<그림-3> 영산아트홀 일정 2010년 8월	19
<그림-4> ‘그림자극으로 만나는 비발디의 사계’ 포스터	65
<그림-5> ‘여름방학 청소년 음악회 Summer classics’ 포스터	69
<그림-6> ‘청소년을 위한 여름방학 국악 콘서트! 2010 국악짱! 재미짱!’ 포스터	69
<그림-7> ‘선생님과 함께 노래를! 우리가락을 찾아서’ 포스터	69
<그림-8> ‘2010 예술의 전당 청소년 음악회 Post 베토벤’ 포스터	72

I. 서론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방학 때마다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음악회들이 공연장 프로그램을 가득 메우고 있다. 이것은 방학숙제로 클래식 음악회를 직접 다녀와서 감상문을 제출하는 청소년 학생들이 증가함에 따라 공연장 측에서도 청소년 청중을 확보하기 위해 너도나도 청소년 음악회 타이틀을 걸고 개최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다보니 청소년 음악회는 그 수가 매년 급증하고 있으며, 더욱 체계적이고 차별화된 프로그램으로 다양화되는 추세이다.¹⁾

또한 공교육에서는 예체능 수업의 감소로 인해 청소년의 음악교육 필요성과 우려가 대두되고 있다. 제한된 수업 시간 내 교실 안에서의 음악교육은 사실상 그 효과를 높이기 어렵다. 이에 따라 교실 밖에서 공연되는 음악회의 중요성이 높아지고, ‘청소년’ 또는 ‘청소년을 위한’ 이라는 타이틀로 청소년 청중을 대상으로 하는 음악회가 많이 공연되고 있다. 그러므로 많은 청소년 음악회가 그 대상과 취지에 맞게 어떠한 형태로 공연을 제공하는지, 실제 공연장에서 어떤 프로그램들이 연주되어 청소년들에게 음악적 흥미와 관심을 신장시키고 있는지 조사가 필요하다.

음악회를 직접 참여해 감상한다는 것은 교실 안에서만 배웠던 음악수업의 이해를 확장시킬 수 있으며, TV나 라디오와 같은 매체를 통해 간접적으로 보고 들어왔던 음악을 현장에서 실제소리를 통해 더욱 가까이 느낄 수 있어서 유익하다. 또한 학생 자신이 수동적으로 음악을 받아들이는

1) 전정임. 청소년 대상 음악회, 지속적 노력 뒷받침되어야. **문화예술 이천이년 구월호**. 2002. p. 49

것이 아니라 자신이 원하는 음악회 유형을 직접 고르고, 프로그램을 이해하고, 입장료를 구매하며, 연주 시간에 맞춰 공연장에 찾아가는 자발적인 행동과 공연장 안에서의 규칙과 에티켓을 배운다는 점에서 중요하다.

미국이 낳은 20세기의 천재적인 음악가, 레너드 번스타인은 1952년에서 1961년 까지 미국의 3대 주요방송사인 CBS, ABC, NBC에서 청소년 음악회를 방송했다. 그는 “수준 높은 문화국가를 이루기 위해서는 예술을 감상할 줄 아는 교육받은 문화국민이 필요하다.”는 말과 함께 방송매체와 음악회에서 청소년들을 위한 음악 교육적 기능을 강화할 것을 주장하였고 미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에 중요성을 알리고 실행에 옮겨 갔다.²⁾

따라서 학생들이 공연 타이틀을 보고 쉽게 접할 수 있는 ‘청소년을 위한 음악회’에 관심을 갖고, 음악회의 현황을 파악하고 프로그램을 조사·분석하여 음악회 개최나 청소년의 참여에 보다 효과적인 영향을 끼치기 위한 것이 본 연구의 목적이다.

2. 연구문제

본 연구에서 연구하고자 하는 문제는 다음과 같다.

- 첫째. 청소년을 위한 음악회의 공연장별, 기간별 연주현황은 어떠한가?
- 둘째. 청소년을 위한 음악회의 공연유형과 프로그램 내용 분석은 어떠한가?
- 셋째. 관객들의 공연 후기는 어떠한가?
- 넷째. 특징이 있는 음악회는 어떠한 것이 있는가?

2) 박진홍. 청소년 음악회의 진단과 활성화. **음악과 비평 제5권 제4호**. 2007. P. 41

3. 연구 내용 및 방법

본 연구의 대상과 연구 절차는 다음과 같다.

가. 연구 대상

2010년 1월부터 2010년 12월까지 1년을 기준으로 서울·경기지역의 주요 공연장에서 진행된 152개의 청소년 음악회 프로그램이 연구 대상이다.

나. 연구절차 및 방법

본 연구의 절차 및 방법은 다음과 같다.

첫째. 공연장 선정에 있어서 검색사이트 네이버에서 ‘티켓예매’를 검색 후 먼저 제시된 사이트 인터파크, 티켓링크 두 곳에서 ‘주요 공연장’으로 소개한 곳을 선정한다. 그리고 ‘주요 공연장’에 제시되지 않았지만 인터파크와 티켓링크에서 ‘청소년 음악회’를 검색하였을 때 2010년도에 많은 공연이 열렸던 공연장도 대상으로 선정한다. 이는 실제 청소년들이 인터넷을 활용 했을 때 쉽게 공연장을 찾을 수 있는 범위를 한정하기 위함이다. 또한 ‘주요 공연장’에 제시 되었지만 서울·경기 이외 지역의 공연장인 경우와 연극, 퍼포먼스, 뮤지컬, 콘서트 같은 공연을 전문으로 하여 청소년 음악회가 한번도 연주되지 않은 공연장인 경우 대상에서 제외한다.

둘째. 공연선정에 있어서는 선정된 공연장 중에서 2010년 1월부터 2010년 12월까지 열린 ‘청소년 음악회’라는 타이틀이 기재된 공연을 선정한다.

셋째. 각 홈페이지에 제시된 연주곡 프로그램을 공연유형별, 시대별, 작곡가별, 장르별 등으로 정리하고 연주 횟수를 조사한다.

넷째. 홈페이지에 기재된 공연후기 중에서 좋았던 점과 아쉬웠던 점을

살펴보고 정리한다.

4. 연구의 제한점

본 연구의 제한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2010년 1월부터 12월 까지 1년을 기간으로 하였고, 검색된 공연장은 주요 공연장으로 소개되고 청소년 음악회가 많이 열린 서울·경기 지역의 일부 공연장만이 대상이므로 모든 청소년 음악회를 대상으로 했다고는 볼 수 없다.

둘째. 공연 선정은 공연 타이틀을 기준으로 선택하였기 때문에, 비록 공연 의도는 청소년을 위한 음악회였다 하더라도 타이틀이 불분명한 경우는 공연선정에서 제외하였다.

셋째. 인터넷을 위주로 프로그램을 수집하였기 때문에 수집하지 못한 프로그램이 있을 수 있다.

넷째. 선정된 공연에서 연주되는 프로그램(곡명)은 해당 홈페이지에 기재된 프로그램 내용만을 중심으로 조사하였으므로, 연주자 사정에 의해 프로그램이 바뀐 경우, 곡명이 잘못 기재된 경우, 앵콜곡이 연주된 경우는 조사하지 못할 수 있다.

다섯째. 전문가가 아닌 청소년들로 구성된 오케스트라의 연주와 청소년들의 실력향상을 위한 향상음악회 같은 경우 관객들을 위한 공연이라기보다 청소년 연주자들의 무대라는 의미가 더 크기 때문에 대상에 포함시키지 않았다.

Ⅱ. 이론적 배경

1. 청소년기의 음악 감상 교육

음악 감상은 예술작품의 심미적 특성이나 가치를 이해하고 아름다움을 느끼는 음악적 체험이다. 언어와 틀로 공식화된 것을 읽고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귀로 듣고 체험하여 음악이 내뿜는 아름다움을 느끼며, 때로는 작곡가가 의도하는 바를 함께 공유할 수 있는 바탕이 된다.

1) 청소년기의 특징

청소년기란 인간 성장 발달 단계에서 아동기와 성인기의 중간시기에 있는 과도기적 존재로서, 신체적·심리적으로 급격한 발달과 변화를 이루는 시기이다. 또 커다란 신체적 변화와 성장을 겪게 되면서 내면적으로는 자의식을 형성하고 자아를 확립해 나가면서 복잡 다양한 과도기적 특징을 보인다.

이처럼 청소년기는 완성의 단계가 아니라 다양한 변화를 통해 계속적으로 성장해 나가는 발달과정이다. 그러므로 청소년들의 풍부한 감수성과 조화로운 인격 형성에 도움을 주는 청소년 시기의 다양한 음악적 활동 경험은 필요하다.

2) 음악 감상 교육이 미치는 영향

정서란 다양한 인간 감정 행동에 적용되어지는 광범위한 용어이다. 마이

어(L. B. Meyer, 1981-)는 ‘음악이 어떻게 감정을 유발하는가?’ 라는 문제에 대해 나름대로 이론을 정립했다. 그의 이론의 핵심은 반응하고자 하는 경향이 방해되거나 억제되어지면 감정이 일어난다는 것이다. 음악에 반응하는 개인의 경향은 그가 듣고 있는 음악 스타일에 대한 선행경험에서 오는 것이다. 그에 따르면 인간은 선행경험을 통해 다음에 오는 음악 패턴들의 유형에 관한 예상 기대감을 발달시킨다. 예상된 패턴들이 오지 않으면, 즉 지연되거나 전혀 오지 않는 정도에 따라 긴장 또는 감정이 야기되어진다고 한다.³⁾ 음악 감상이 이렇게 정서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면 불안정한 청소년 시기에 정서와 자아를 형성하는 것에 큰 영향을 끼친다고 말 할 수 있다.

또한, 한 연구에서 박은미⁴⁾는 대상으로 선정한 청소년을 DISC⁵⁾ 검사를 통해 유형별로 현재 그들이 자신에 대해 느끼고 있는 부정적인 인성들을 자신의 성격 유형에 따라 조사하였다. 그리고 음악 감상 교육을 통해 청소년들의 부정적인 인성을 어떻게 변화시킬 것인가를 실험하였다. 조사결과 음악 감상 교육은 청소년의 부정적 인성을 긍정적으로 변화 시키는데 기여 할 수 있다고 밝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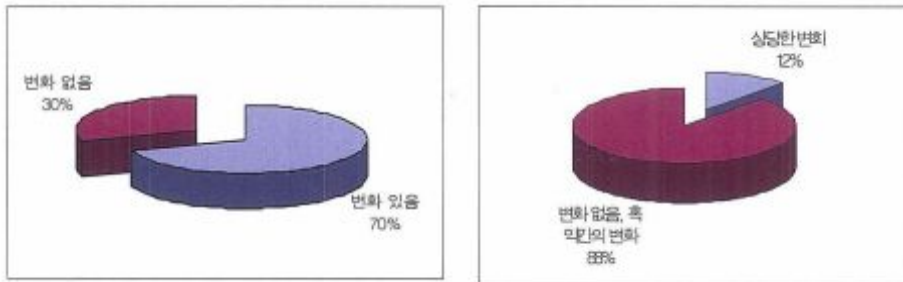
3) Rudolf E. Radocy & David Boyle 지음, 최병철·방금주 옮김. **음악심리학**. 서울: 학지사, 2002. p. 311

4) 박은미. 청소년의 인성형성에 대한 음악 감상 교육의 역할 연구. 서울: 국민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2007. pp. 73-76

5) DISC는 인간의 행동유형(성격)을 구성하는 핵심 4개요소인 Dominance, Influence, Steadiness, Conscientiousness의 약자이다.

(출처 http://www.idisc.co.kr/01/01_01.asp)

<그림-1> 감상 후 변화가 있는가? <그림-2> 얼마나 변화 있었나?



이처럼 청소년기는 신체적인 성장 뿐 아니라 자아와 정서, 가치관, 도덕성, 감수성, 지적수준이 변화하고 발전하는 시기로서 무엇보다 아름다운 감성을 지닐 수 있도록 음악적 예술 교육이 중요하다. 다른 과목에 비해 중요한 음악 감상 교육을 통해서 감수성이 예민한 청소년들에게 음악의 본질과 미적 요소를 감지하여 느끼게 해주고, 연주를 감상할 때 연주자와 상호 교감할 수 있도록 하며, 음악적 사고와 능력을 발전시켜 높은 질의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한다.

따라서 예술 작품을 감상하고 이해하는 음악적 경험을 통해 음악성과 감수성을 발달시키는 음악교육은, 귀로 직접 음악을 감상하는 과정 속에서 청소년에게 더욱 효과적인 교육이 된다.

2. 청소년의 음악 감상 실태

이지연⁶⁾은 경기도에 있는 중·고등학생 남·여 100명을 무작위로 선정하여 조사한 결과, ‘평소 즐겨듣는 음악 장르는 무엇입니까?’ 라는 질문에 <표 I -1>에서 나타난 바와 같이 전체의 92%가 대중음악을 듣고 있었음을 밝혔다. 특히 국악을 평소에 즐겨 감상한다는 의견은 없었다. 또한 <표 I -2>에서는 클래식 음악회를 찾는 횟수를 질문 하였는데 참여 횟수가 적었다. 1년에 한 번도 참여하지 않은 빈도도 30%나 되었다.

<표 I -1> 평소 즐겨듣는 음악 장르는 무엇입니까?

구분	빈도(명)	백분율(%)
대중음악	92	92
팝송	5	5
클래식	3	3
국악	0	0
계	100	100

<표 I -2> 클래식 음악회는 1년에 몇 번 정도 갑니까?

구분	빈도(명)	백분율(%)
1회 이상	55	55
3회 이상	7	7
5회 이상	8	8
없다.	30	30
계	100	100

6) 이지연. 음악교육이 인격형성에 미치는 영향 : 청소년 시기를 중심으로. 전남: 목포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2008. p. 20,26

서승미(2005)⁷⁾는 서울 시내 E 고등학교 2학년 여학생 69명과 S 고등학교 2학년 남학생 89명인 총 158명 중에서 설문지가 유효한 153명을 조사한 결과, 청소년이 선호하는 음악 장르로는 대중가요가 87명(56.8%)으로 과반수이상을 차지했으며, 클래식은 5명(3.9%)이었음이 조사되었다. <표 I-3>를 참조한다.

<표 I-3> 선호하는 음악 장르

장르	인원수(명)		합	%
	남	여		
대중가요	49	38	87	56.8
POP	14	8	22	11.1
락/헤비메탈	9	3	12	11.1
CCM	5	4	9	4.5
J-POP	4	2	6	4.5
클래식	3	2	5	3.9
뉴에이지	1	5	6	3.9
기타	1	4	5	3.9
합	88	65	153	100

이혜선⁸⁾은 경상남도 김해시의 일부 남, 여 중학교 학생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평소에 즐겨듣는 음악으로 전체 79.8%가 대중음악을 듣고 있었다. 팝송도 그 범주에 넣으면 전체가 87.9%로 다른 항목에 비하여 그

7) 서승미. 청소년의 음악 감상 행동에 관한 연구. 서울: 이화여자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2005. p. 42

8) 이혜선. 청소년의 음악에 관한 선호도 연구 : 중학생을 중심으로. 경남: 경남대학교 교육대학원. 2006. p. 12, 21, 24

비율이 편중되어 있음이 나타났다. ‘클래식 음악’ 5.8%, ‘학교에서 배운 음악’과 ‘종교음악’이 각각 2.2%, ‘영화음악’이 1.8%순으로 나타났다. <표 I-4>를 참조한다.

<표 I-4> 평소에 즐기는 음악

구분	학교에서 배운음악	대중가요	클래식 음악	종교 음악	영화 음악	팝송	합계	카이제곱 (자유도)	p	
학년	1학년	2	59	3	1	0	9	9.850 (10)	0.454	
		2.7%	79.7%	4.1%	1.4%	0.0%	12.2%			100.0%
	2학년	2	64	4	3	2	2			77
		2.6%	83.1%	5.2%	3.9%	2.6%	2.6%			100.0%
	3학년	1	55	6	1	2	7			72
		1.4%	76.4%	8.3%	1.4%	2.8%	9.7%			100.0%
성별	남자	3	86	11	2	1	8	111	8.051 (5)	0.153
		2.7%	77.5%	9.9%	1.8%	0.9%	7.2%	100.0%		
	여자	2	92	2	3	3	10	112		
		1.8%	82.1%	1.8%	2.7%	2.7%	8.9%	100.0%		
합계	5	178	13	5	4	18	223			
	2.2%	79.8%	5.8%	2.2%	1.8%	8.1%	100.0%			

또한, <표 I-5>를 보면 일년 중 음악회에 가는 횟수는 ‘관람해 본 적 없다’가 전체 60.5%로 가장 높은 응답을 하여 상당히 많은 학생들이 음악회에 가 본 경험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음으로 ‘1-2회’가 32.7%로 나왔다. 학년별로는 2학년이 음악회에 가본 적이 없다는 응답이 가장 많았고, 성별로는 남학생이 여학생보다 음악회에 가 본 적이 없다는 응답이 많았다.

<표 I -5> 일년 중 음악회에 가는 횟수

구분	1~2회	3~5회	6회 이상	관람해본적 없다	합계	카이제곱 (자유도)	p
학 년	1학년	31	4	0	39	5.371 (6)	0.497
		41.9%	5.4%	0.0%	52.7%		
	2학년	20	5	1	51		
		26.0%	6.5%	1.3%	66.2%		
	3학년	22	4	1	45		
		30.6%	5.6%	1.4%	62.5%		
성 별	남자	27	7	1	76	7.159 (3)	0.067
		24.3%	6.3%	0.9%	68.5%		
	여자	46	6	1	59		
		41.1%	5.4%	0.9%	52.7%		
합계	73	13	2	135	223		
	32.7%	5.8%	0.9%	60.5%			

앞서 제시한 연구는 연구시기가 조금 이전 것이지만 여러 해의 논문에서 비슷한 결과가 나타났기 때문에 청소년들의 음악 감상 실태를 평균적으로 확인 할 수 있었다.

종합해보면 알 수 있듯이 많은 청소년들은 대중매체를 통한 강렬한 사운드와 화려한 무대, 스타를 앞세운 음악을 주로 듣는다. 자극적인 음악에 익숙한 청소년들에게는 이러한 요소가 없는 클래식이나 국악과 같은 음악에는 관심과 흥미가 부족할 수밖에 없다. 이러한 현황과 문제점을 인식하고 청소년들에게 유익한 음악 감상을 교육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

3. 청소년 음악회의 종류

일반적인 음악 감상 형태는 무대에서 연주자가 음악을 연주하면 관객은 음악의 3요소인 리듬(rhythm), 선율(melody), 화성(harmony)을 통해 음악을 감상하는 것이다. 하지만 클래식에 익숙지 않은 청소년들이 순수하게 음악만을 통하여 감동을 느끼기에는 어려운 경우가 있다. 그렇기 때문에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음악회에서는 ‘해설’이라는 요소를 가미하기도 한다. 여기서는 해설이 있는 음악회에 대해서 설명하기로 한다.

음악 감상은 가장 기본적인 음악 활동으로서 음악적 기술과 훈련이 필요한 다른 음악활동에 비해 접하기 쉽고 실제로도 많이 접하고 있다. 그러나 음악에 대한 이론적 이해 없이 단순히 듣는 것에서 멈춘다면 더욱 깊은 음악적 이해와 경험을 하기 어려울 것이다. 여기서 ‘음악에 대한 이해’란 리듬, 가락, 화성, 음색 등의 음악적 요소에서부터 음악의 조직과 구조, 형식, 장르에 이르기까지 음악의 다양한 이론들을 포함하며 더 나아가서는 작곡자와 작품의 시대적 배경과 역사적 사실들이 음악 작품을 이해하는데 도움을 줄 수도 있다.⁹⁾ 그렇기 때문에 음악 감상에서 ‘수동적인 듣기’가 되지 않기 위해서는 이러한 ‘이해’의 요소가 필요하며 이것이 더 깊은 음악적인 즐거움을 위한 음악 감상에서의 과제인 것이다.¹⁰⁾

1) 해설이 있는 음악회 개념

‘해설이 있는 음악회’는 기존의 클래식 음악회와 발레, 한국전통 음악회

9) 전유진. ‘번스타인 청소년 음악회’의 음악설명방식 고찰. 충북: 한국교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2004. p. 1

10) Peter Kivy 저, 장호연·이종희 역. **순수 음악의 미학**. 서울: 이론과 실천. 2000. p. 140

등에 해석이라는 요소를 포함시킨 것으로 공연의 시작에 앞서 해설자가 공연에 대한 해설을 하는 것에서 시작되었다. 이는 음악에 대한 관객의 이해를 돕고, 어려운 고전문화를 쉽게 접할 수 있게 하기 위해 등장한 방법 중의 하나이다.

처음에 ‘해설이 있는 음악회’는 클래식 공연의 형식, 악기의 설명, 관객의 예절 등 기초적인 설명에서부터 시작 되었는데, 이는 클래식에 대해 문화적인 거리감을 갖고 있었던 대중과 가까워지기 위함 이었다. 해설자는 연주에 앞서 그날 연주되는 프로그램에 대한 작곡 배경, 작곡가의 삶, 작품의 내용 등을 설명해주고 난 후 연주가 시작되는 모습을 띄었는데 이 형식은 공연 전체에 대한 파악과 이해를 도왔을 뿐, 실제로 연주가 시작되었을 때 관객이 음악과 설명을 융합시키면서 이해하고 받아들이기에는 부족했다. 이런 점을 극복하기 위한 방법이 아래에서 설명된 번스타인의 해설방법이다.¹¹⁾

2) 해설이 있는 음악회 사례

음악 감상에서 ‘해설’의 유익함과 필요성으로 인해 여러 공연이나 TV, 라디오에서 음악에 대한 많은 설명들과 이해하기 어려운 내용들이 쏟아져 나오고 있다. 그러나 음악은 언어로 설명되어지기에 모호한 심미적 예술이란 점 때문에 음악적 설명은 곡에 따라서 신중히 다루어져야 하며 설명하는 방식에 있어서도 가능한 한 음악적이어야 한다.¹²⁾

이런 상황 속에서 미국의 지휘자이자 작곡자이며 피아니스트, 음악 교

11) 함정례. 구성주의 관점의 ‘해설이 있는 음악회’ 연구 : 유라시안 필하모닉 오케스트라 사례를 중심으로. 서울: 명지대학교 문화예술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2007. p. 41

12) 전유진. 2004. p. 1

육자로 유명한 레너드 번스타인(Leonard Bernstein, 1918~1990)은 음악을 이해하기 위한 여러 가지 형태의 설명들이 음악을 상품화하기 위한 수단으로 정당화되었다고 비판한다.¹³⁾ 그는 자신이 지휘하던 뉴욕 필하모닉 오케스트라와 함께 『번스타인 청소년 음악회』 프로그램을 연구하여, 어렵고 복잡한 음악 이론을 실제 연주와 함께 편안하고 즐겁게 전개시켜 음악에 대한 근원적인 흥미를 유발시키고 음악에 관한 다양한 이해를 도왔다.¹⁴⁾

그는 해설자가 곡마다 해설을 함으로써 듣는 이로 하여금 곡에 대한 이해를 높였고, 곡의 상세한 부분을 직접 들려줌으로써 전체 곡이 연주될 때 설명과 곡을 연결시켜 이해할 수 있게 하였다. ‘해설’이라는 요소를 통해 클래식 음악에 대해 부담감을 갖거나 정보가 부족했던 관객에게 공연을 쉽게 이해할 수 있는 출구가 될 수 있고, 관객의 지적능력과 수준을 높여 클래식 음악에 대해 더 깊은 관심을 가질 수 있게 하였다.¹⁵⁾

이처럼 ‘해설’이라는 요소를 청소년을 위한 음악회에 적절하게 사용하면 청소년들이 어려웠던 음악을 이해하는 것 뿐 아니라 음악에 대한 관심과 호기심을 유발하는 것에도 도움이 될 수 있다.

13) L. Bernstein, 김미애 역. **음악의 즐거움을 찾아서**. 서울: 삼호출판사. 1991. p. 11,12

14) 전유진. 2004. p. 2

15) 함정례. 2007. pp. 41-42 요약

4. 선행연구

이경혜(2008)는 ‘청소년 음악회 조사연구-서울·경기지역을 중심으로’에서 실제 음악회장에서 어떠한 활동들이 이루어지고 있는지, 또한 구체적인 진행 상황들은 어떠한지를 연구하기 위하여 청소년 음악회를 직접 참관해서 관찰한 질적 연구방법을 하였다. 연구자는 직접 관찰한 20개의 음악회를 ‘해설이 있는 청소년 음악회’(11개), ‘다른 영역과 통합된 청소년 음악회’(7개), ‘연주로 이루어진 청소년 음악회’(3개) 이 3가지 유형으로 분류하여 공연개요와 특징, 곡목의 구성과 진행 상황을 자세히 관찰하였다. 그리고 연주된 프로그램과 중·고등학교 음악 교과에 수록된 곡목과의 연계성을 제시하였는데 많은 연관성이 있는 것으로 분석 되었다. 또한, 감상일지를 제시하여 각 유형별 특징과 이에 대한 문제점, 개선점에 대해 알아보고 향후 청소년 음악회가 나아가야 할 방향을 제시하였다.

원혜림(2008)은 ‘수도권 지역 시립합창단의 청소년을 위한 연주활동 연구’에서 2005년~2007년 까지 6개의 시립합창단을 대상으로 청소년을 위한 연주활동과 청소년을 위한 연주 레퍼토리를 분석하였다. 연주활동 장소는 공연장 뿐 아니라 중·고등학교에 직접 찾아가 연주하는 ‘찾아가는 음악회’형식으로 주로 이루어졌다. ‘찾아가는 음악회’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정부적인 차원에서 각 시청 문화계의 기획이나 각 지역 학교들과의 연계가 좀 더 연속적이고 조직적인 방법으로 이루어질 필요가 있겠다고 제언했다. 레퍼토리 분석에서는 크게 종교음악, 예술음악, 대중음악, 현대합창의 네 가지 장르로 구분하여 어느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고 청소년 음악회의 프로그램이 다양하게 구성되어 있는지를 분석하였다. 또한 설문조사를 통해서 청소년들이 시립합창단의 공연을 관람할 기회는 매우 적다고 조사

되었지만, 공연을 보고 난 이후의 만족도는 매우 높아 청소년들이 시립합창단의 공연을 더욱 자주 접할 수 있도록 해 주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시립합창단의 나아가야 할 방향에서는 일정한 시기와 다양한 공연 형태가 필요하며, 정기적으로 각 지역의 모든 학교에서 고루 개최되어야 하고, 찬조출연의 기회를 통해 청소년들이 직접 음악회에 참여하는 시간이 필요하다고 제언하였다.

함정례(2007)는 ‘구성주의 관점의 ‘해설이 있는 음악회’ 연구: 유라시안 필하모닉 오케스트라 사례를 중심으로’에서 구성주의 이론을 바탕으로 하고, 크리스토퍼 스몰이 주장한 음악하기(Musicking)라는 용어를 활용하여 ‘구성주의 음악하기(Constructivistic Musicking)’ 라는 개념을 제시하였다. 그리고 해설이 있는 음악회에 대한 사례(6가지 음악회)를 분석하고, 특히 유라시안 필하모닉 오케스트라의 <해설이 있는 음악회>를 미국의 로젠이 번스타인의 <청소년 음악회> 분석에서 사용한 방법에 기초해 분석하여 이 사례를 중심으로 연구하여 새로운 공연형식을 제안하였다.

이수경(2004)은 ‘청소년 음악문화의 질적 향상을 위한 방안연구’에서 문헌을 통해 청소년 음악문화가 청소년에게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았다. 그리고 청소년 음악문화 환경 조성을 위한 외국의 사례를 통하여 우리나라 청소년 음악문화의 시사점을 찾고자 하였다. 이와 관련된 논문과 문화관광부의 통계자료 그리고 설문지를 통해 청소년 음악문화의 실태와 문제점을 분석하고, 이를 위한 개선방향을 제시하였고 프로그램 모형을 개발하였다.

위의 연구처럼 청소년 음악회에 대한 연구가 다양한 측면에서 있었음을 알 수 있었다. 기존의 연구는 청소년 음악문화에 대한 연구나 특정 오케스트라의 청소년 음악회 연주활동을 분석하는 연구가 많았다. 또한 실

제 연주현장에서 청소년 음악회가 유형별로 어떠한 특징을 가지고 있는지 자세히 소개하는 연구도 있었지만, 전체적인 청소년 음악회의 공연상태와 연주된 프로그램에 대한 세밀한 분석은 없었다. 때문에 본 연구자는 선행연구를 바탕으로 청소년을 위한 음악회의 현황과 연주 프로그램을 분석하여 연구하기로 한다.

Ⅲ. 청소년을 위한 음악회 분석

1. 청소년을 위한 음악회 현황 분석

가. 공연장별 연주현황

인터넷 예매사이트 인터파크와 티켓링크를 통해 연구대상으로 선정된 공연장은 18곳이다. 여기서 열린 ‘청소년을 위한 음악회’의 연주 횟수는 총 152회였는데 그 중 영산아트홀이 31회로 가장 많았다. 그리고 예술의전당(콘서트홀)이 20회, 세종문화회관(체임버홀)과 예술의전당(리사이틀홀)이 15회, 고양아람누리가 12회 공연되었다. 국립극장과 국립국악원에서는 국악공연만 각각 7회와 2회가 열렸다. 공연장별 연주 횟수는 아래 <표Ⅱ-1>에서 자세히 제시하였으며, 가장 연주가 많이 열린 영산아트홀의 8월 연주일정의 예를 보여주면 <그림-2>와 같다.

<표Ⅱ-1> 공연장별 연주 횟수

공연장 명	횟수	공연장 명	횟수
영산아트홀	31	고양어울림누리	4
예술의전당(콘서트홀)	20	금호아트홀	4
세종문화회관(체임버홀)	15	구로아트밸리	3
예술의전당(리사이틀홀)	15	의정부예술의전당	3
고양아람누리	12	국립국악원	2
경기도문화의전당	10	안산문화예술회관	2
성남아트센터	10	나루아트센터	1
국립극장	7	KBS홀	1
장천아트홀	7	총 연주 횟수	152회
세종문화회관(대극장)	5		

<그림-3> 영산아트홀 일정 2010년 8월16)

< 2010 년 >

8월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SUNDAY	MONDAY	TUESDAY	WEDNESDAY	THURSDAY	FRIDAY	SATURDAY
1일	2일	3일	4일	5일	6일	7일
8일	9일 2010 영산아트홀 초 청기회 청소년을 위 한 음악회 '귀메익은 클래식 VII' - 양혜 조 피아노 독주회 PM 7:30	10일 2010 해설이 있는 청소년을 위한 음악 회_이럴 때 이런 음 악 PM 3:00 2010 해설이 있는 청소년을 위한 음악 회_이럴 때 이런 음 악 PM 7:30	11일 2010 해설이 있는 청소년을 위한 음악 회_이럴 때 이런 음 악 PM 3:00 2010 해설이 있는 청소년을 위한 음악 회_이럴 때 이런 음 악 PM 7:30	12일 2010 해설이 있는 청소년을 위한 음악 회_이럴 때 이런 음 악 PM 3:00 2010 해설이 있는 청소년을 위한 음악 회_이럴 때 이런 음 악 PM 7:30	13일 2010 영산아트홀 초 청기회 청소년을 위 한 음악회 '귀메익은 클래식 VII' - 클라 리네티스트 볼프강 메더와 함께하는 한 마음 클라리넷 앙상 블 연주회 PM 7:30	14일 2010 영음예술기획 해설이 있는 청소년 음악회 시즌 17 "스 마트 클래식 시리즈" PM 3:00 2010 영음예술기획 해설이 있는 청소년 음악회 시즌 17 "스 마트 클래식 시리즈" PM 7:30
15일 일복경 2010 영음예술기획 해설이 있는 청소년 음악회 시즌 17 "스 마트 클래식 시리즈" PM 3:00 2010 영음예술기획 해설이 있는 청소년 음악회 시즌 17 "스 마트 클래식 시리즈" PM 7:30	16일 일탈열석 2010 영음예술기획 해설이 있는 청소년 음악회 시즌 17 "스 마트 클래식 시리즈" PM 3:00 2010 영음예술기획 해설이 있는 청소년 음악회 시즌 17 "스 마트 클래식 시리즈" PM 7:30	17일 2010 영음예술기획 해설이 있는 청소년 음악회 시즌 17 "스 마트 클래식 시리즈" PM 3:00 2010 영음예술기획 해설이 있는 청소년 음악회 시즌 17 "스 마트 클래식 시리즈" PM 7:30	18일 2010 영음예술기획 해설이 있는 청소년 음악회 시즌 17 "스 마트 클래식 시리즈" PM 3:00 2010 영음예술기획 해설이 있는 청소년 음악회 시즌 17 "스 마트 클래식 시리즈" PM 7:30	19일 제11회 여름방학 청 소년을 위한 해설이 있는 음악회 '클래 식 나들이' PM 3:00 제11회 여름방학 청 소년을 위한 해설이 있는 음악회 '클래 식 나들이' PM 7:30	20일 제11회 여름방학 청 소년을 위한 해설이 있는 음악회 '클래 식 나들이' PM 3:00 제11회 여름방학 청 소년을 위한 해설이 있는 음악회 '클래 식 나들이' PM 7:30	21일 제11회 여름방학 청 소년을 위한 해설이 있는 음악회 '클래 식 나들이' PM 3:00 제11회 여름방학 청 소년을 위한 해설이 있는 음악회 '클래 식 나들이' PM 7:30
22일 제11회 여름방학 청 소년을 위한 해설이 있는 음악회 '클래 식 나들이' PM 3:00 제11회 여름방학 청 소년을 위한 해설이 있는 음악회 '클래 식 나들이' PM 7:30	23일 제11회 여름방학 청 소년을 위한 해설이 있는 음악회 '클래 식 나들이' PM 3:00 제11회 여름방학 청 소년을 위한 해설이 있는 음악회 '클래 식 나들이' PM 7:30	24일 제3회 국민일보-영 산아트홀 주최 오르 간 실내악 콩쿠르 AM 9:00	25일	26일 제3회 국민일보-영 산아트홀 주최 오르 간 실내악 콩쿠르 AM 9:00	27일 2010 영산아트홀 초 청기회 청소년을 위 한 음악회 '귀메익은 클래식 VII' - 오르 간과 함께하는 여름 축제 PM 7:30	28일 2010 영산아트홀 초 청기회 청소년을 위 한 음악회 '귀메익은 클래식 VII' - 헨드 엘과 함께하는 재밌 는 음악회 PM 3:00
29일 2010 영산아트홀 초 청기회 청소년을 위 한 음악회 '귀메익은 클래식 VII' - 노현경 피아노 독주회 PM 3:00	30일 Young Solist Concert PM 7:30	31일 Young Solist Concert PM 7:30				

16) 영산아트홀 홈페이지 공연안내 아트홀일정 2010년 8월
<http://www.youngsanarthall.com/>

나. 월별 연주현황

월별로 ‘청소년을 위한 음악회’가 연주된 횟수를 살펴보면 8월이 106회로 가장 많은 연주가 열렸다. 다음으로 1월이 13회, 7월과 2월이 각각 11회와 7회가 열렸는데, 이는 총 연주의 90%가 청소년들의 여름방학과 겨울방학에 집중적으로 연주되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여름방학의 연주 횟수가 겨울방학의 연주 횟수 보다 6배 이상 많았다. <표Ⅱ-2>를 참조한다.

<표Ⅱ-2> 월별 연주 횟수

월	연주 횟수
1월	13
2월	7
3월	3
4월	0
5월	2
6월	1
7월	11
8월	106
9월	1
10월	2
11월	5
12월	1
총	152회

다. 요일별, 시간대별 연주현황

요일별로는 주말인 토요일과 일요일이 각각 51회와 30회로 많았다. 수요일이 19회, 금요일 15회, 화요일과 목요일이 동일하게 14회로 평일은 요일에 큰 관계없이 연주가 고르게 분포되어 있었다. 또한, 시간대별로는 오후 활동시간인 11시~5시까지 77회가 열렸고, 7시~8시 저녁시간대는 75회가 열렸다. 이는 대부분의 다른 연주회는 저녁시간에 주로 공연이 열리지만, 청소년을 위한 음악회는 청소년들이 주로 활동하는 오후시간대가 큰 비율로 공연 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표Ⅱ-3>

<표Ⅱ-3> 요일별, 시간대별 연주 횟수

요일	연주 횟수	시간	연주 횟수
월요일	9	11시	4
화요일	14	2시	1
수요일	19	2시30분	12
목요일	14	3시	36
금요일	15	4시	12
토요일	51	5시	12
일요일	30	7시	2
총	152회	7시30분	50
		8시	23
		총	152회

라. 공연 종류와 프로그램 내용

청소년을 위한 음악회는 시리즈 공연¹⁷⁾이 많았다. 큰 타이틀을 가지고 많게는 16회까지 다양한 주제를 가진 음악회들이 열렸다. 공연 횟수가 높은 음악회 중에서 10회가 열린 ‘2010 영음예술기획 해설이 있는 청소년음악회 시즌17-스마트 클래식 시리즈’같은 경우 10회 공연 모두 영산아트홀에서 열렸으며, 8월14일~8월18일 5일동안 하루에 두 번씩 오후 3시와 저녁 7시30분에 연속적으로 열렸다.¹⁸⁾ 그렇다고 모든 연주가 한 공연장에서만 연속으로 열리는 것은 아니다. ‘제11회 여름방학 청소년을 위한 해설음악회’같은 경우 영산아트홀에서 10회, 고양아람누리에서 3회, 성남아트센터에서 2회, 예술의 전당(콘서트홀)에서 1회가 열렸으며, ‘2010 해설이 있는 청소년을 위한 음악회-이럴 때 이런 음악’은 영산아트홀 6회, 금호아트홀 4회, 장천아트홀 3회, 예술의전당 콘서트홀과 리사이틀홀에서 각각 1회가 열렸다.

<표Ⅱ-4>에서 상위권에 있는 공연들은 대부분 예술기획사나 초청기획으로 열렸으며, ‘한화와 함께하는 2010 예술의전당 청소년음악회’나 ‘아이러브클래식 현대엠코 청소년 해설 음악회’처럼 기업 이름과 함께 기획되기도 한다. 또한, ‘교과서에 나오는 클래식음악 특별공연’이라는 타이틀로 청소년 클래식 음악과 교과서 음악을 전문으로 연주 하는 ‘아름다운 오케스트라’도 있었다.

여기서 ‘번스타인의 청소년 음악회’는 5회로 기획되었지만, 일부 공연이 연구범위로 선정한 공연장 외의 장소에서 연주 되었을 경우 횟수에서 제외하였다. ‘교과서에 나오는 클래식음악 특별공연’은 총 7회 중 3회가 제외되었다.

17) 시리즈 공연은 동일한 타이틀로 연속 기획된 공연을 말한다.

18) <그림-1>참조

하나의 시리즈로 기획되어 있어도 각 회마다 프로그램 내용이 다른 시리즈 공연은 16개였으며, 공연 내용이 동일한 7개의 기획공연은 각각 회마다 공연 장소가 다르거나, 날짜와 시간이 다르게 연주 되었다. 여기서 ‘청소년과 가족을 위한 해설음악회’의 총 4회 공연 중 세종문화회관(체임버홀)에서 8월7일 오후3시와 오후7시30분 공연이 동일하고 16일과 21일 공연은 각각 다른 프로그램이기 때문에 ‘다름’이라고 분류했으며, ‘경기필하모닉 청소년 여름예술여행’은 협연자와 프로그램 내용이 조금씩 다르기 때문에 ‘다름’이라고 분류하였다.

<표Ⅱ-4> 공연 횟수와 프로그램 내용

공연	횟수	프로그램
제11회 여름방학 청소년을 위한 해설음악회	16	다름 ¹⁹⁾
2010 영음예술기획 해설이 있는 청소년음악회 시즌17 -스마트 클래식 시리즈	10	다름
2010 해설이 있는 청소년을 위한 음악회 -이럴 때 이런 음악	15	다름
2010 예술의전당 여름실내악	8	다름
2010년 봄방학 특별공연	7	동일 ²⁰⁾
2010 영음예술기획 해설이 있는 청소년음악회 시즌16 -실내악 Festival	7	다름
2010 영음예술기획 해설이 있는 청소년음악회 시즌17 -친근한 클래식 시리즈	7	다름
한화와 함께하는 2010 예술의전당 청소년 음악회	6	다름
2010 영산아트홀 초청기획 청소년을 위한 음악회 -귀에익은 클래식Ⅶ	5	다름
아이러브클래식 현대엠코 청소년 해설음악회	5	동일

경기필하모닉 청소년 여름예술여행	4	다름
교과서에 나오는 클래식음악 특별공연	4	다름
번스타인의 청소년 음악회	4	동일
청소년과 가족을 위한 해설음악회	4	다름
2010 프로아트 청소년음악회 클래식비타민	3	다름
경기도립국악단 기획공연 청소년국악여행	3	동일
여름방학 청소년음악회 Summer classics	3	동일
청소년음악회 시리즈	3	다름
1회 여름방학 팡팡 청소년 해설음악회	2	다름
2010 국립국악원 청소년음악회	2	동일
2010 아람누리 청소년음악회	2	다름
제10회 겨울방학 청소년을 위한 해설음악회	2	다름
JK양상블과 함께하는 청소년을 위한 해설 음악회	2	동일
1회 연주 ²¹⁾	28	다름
총 공연 횟수	152회	

19) 동일한 타이틀로 연속 기획된 시리즈 공연에서 매 공연마다 연주되는 프로그램이 다른 경우 '다름'으로 분류 하였고, 동일한 프로그램으로 연주되는 경우 '동일'이라 분류 하였다.

20) 총7회 중에서 각각 4회 프로그램이 동일하고, 3회 프로그램이 동일하므로 '동일'이라 분류 하였다.

21) 1회 연주로 분류된 음악회 중에서는 1회만 연주되었던 공연 뿐 아니라, 시리즈로 2회 이상 공연되었지만 연구자가 설정한 연구범위에 제한되어서 조사하지 못한 공연이 포함 될 수 있다.

2. 청소년을 위한 음악회 공연유형²²⁾

공연된 152회 음악회는 크게 서양음악 공연, 국악 공연, 기타공연으로 나눌 수 있다. 서양음악은 총 131회가 연주 되었고 국악은 16회, 기타공연은 5회가 연주되었다. 131회가 열린 서양음악 중에서는 기악공연이 108회로 가장 많았고, 성악·기악공연이 12회, 성악공연이 11회 연주되었다.

성악은 중창 팀으로 이루어진 공연이나, 여러 명의 솔리스트들이 솔로나 중창을 번갈아 가면서 하는 공연이 포함되었고, 기악은 독주회, 중주, 관현악 합주 등 모두 포함되었다. 성악·기악은 성악가와 기악 연주자들이 함께 출현하여 공연 비중이 비슷하거나, 출연자 목록에 함께 소개되어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

국악은 총 16회의 공연이 있었고, 각 공연마다 기악과 가창이 함께 있었다. 기타공연에는 ‘아마도이사람 밴드’와, ‘수원 기타 콰르텟’, ‘오르간’, ‘세계악기 소개’, ‘대전 핸드벨 콰이어’의 공연이 분류되었다.

본 연구에서는 중복된 연주의 경우 중복에 상관없이 모두 하나씩 개수 하였다. 예를 들어 동일한 프로그램으로 3회 연주된 공연의 경우 3회로 개수 하였다. <표Ⅲ-1>을 참조한다.

22) 공연 유형은 공연 타이틀과 프로그램에 소개된 연주자 팀과 포스터를 중심으로 큰 틀을 가지고 분류하였다. 예를 들어, 현악4중주 팀 인데, 한 곡만 특별출현으로 성악이 연주 되더라도 이런 경우는 메인 연주자가 현악4중주 팀 이므로 기악으로 분류한다.

<표Ⅲ-1> 공연 유형

공연 유형		횟수
서양음악공연	성악공연	11
	기악공연	108
	성악·기악공연	12
국악공연		16
기타공연		5
총		152회

가. 서양음악공연 유형

1) 성악공연 유형

먼저 서양음악공연에서 성악공연을 세분화하여 살펴보면, 총 11회 중에서 1회만 독창이고 10회는 중창이었다. 중창 연주자들은 기악 중주와 마찬가지로 성악중창 팀으로써 구성되어 연주하는 형태가 많았다. ‘현대성악앙상블’, ‘서울싱어즈소사이어티’, ‘서울오페라컴퍼니’ 등이 그 예이다. 주로 소프라노, 테너, 베이스로 구성된 연주자들이 각각 독창을 하기도 하고, 2중창, 3중창으로 다양하게 구성하여 연주한다. 보통 3명~4명이 한 팀으로 구성되며 ‘현대성악앙상블’같은 경우 10명의 연주자가 출현하기도 했다. 독창으로 분류된 연주회 하나는 ‘○○○독창회’라고 타이틀이 명시되어 있지 않았지만 프로그램 내용에서 출연진이 바리톤 한명이었기 때문에 독창으로 분류하였다. 성악 연주회는 모두 피아노 반주로 이루어졌다. <표Ⅲ-2>를 참조한다.

<표Ⅲ-2> 성악공연 유형

성악공연 유형	횟수
독창	1
중창	10
합창	0
총	11

2) 기악공연 유형

서양음악 공연유형 중에서 108회로 가장 많이 열린 기악공연을 다시 세분하여 <표Ⅲ-3>에 연주 유형별로 분류하였다. 중주가 49회로 가장 많았고, 관현악합주(오케스트라)가 39회 연주되었다. 여기서 중주 유형은 악기 종류와 상관없이 듀엣, 트리오, 콰르텟, 퀸텟 등으로 구성된 팀 또는 연주자들이 포함된다. 대부분 중주 유형은 팀으로 구성되어 있어서 공연 소재목으로 ‘KCO 스트링 콰르텟과 함께하는’, ‘프리마 앙상블과 함께하는’ 등 이런 식으로 팀 소개와 함께 제시되었다. 독주회는 피아노 독주회만 2회(양혜조 피아노 독주회, 노현정 피아노 독주회) 연주 되었으며, 현악합주와 관악합주가 각각 4회와 1회 연주 되었다. 피아노중주 유형은 여러 명의 피아니스트들이 2대 이상의 피아노를 연주하는 공연을 말하며 총 13회 연주 되었다.

<표Ⅲ-3> 기악공연 유형

기악공연 유형	횟수
독주회	2
중주	49
피아노중주(2대의피아노)	13
현악합주	4
관악합주	1
관현악합주(오케스트라)	39
총	108회

3) 성악·기악공연 유형

성악·기악 유형은 한 공연에서 성악가(또는, 성악중창 팀)와 기악중주 팀이 함께 소개되고 연주하며 성악과 기악의 연주비중이 비슷한 유형이다. 보통 기악과 성악이 몇 곡씩 돌아가면서 연주되었으며, 성악은 피아노나 기악앙상블의 반주로 함께 연주되었다. 총 12회의 연주회 중 11회는 이와 같은 연주유형을 가졌으며, 나머지 1회는 유일하게 합창단이 오케스트라와 함께 연주되었다.

나. 국악공연 유형

국악은 16회 연주되었는데 총 연주회의 약 11%에 해당한다. 이것은 서양음악이 연주회의 86%를 차지한 것에 비하면 적은 수치이다. 국악은 총 16회의 연주 중에서 절반 이상인 12회 공연이 각각 동일한 프로그램을 갖는 시리즈 공연(각각 4회, 3회, 3회, 2회씩)으로 구성되어 있었다.

다. 기타공연 유형

기타공연 유형에는 밴드, 기타앙상블, 오르간, 핸드벨, 세계악기소개 공연이 모두 1회씩 연주되었다. 밴드와 기타앙상블, 핸드벨공연은 팀이 공연하였고, 오르간공연은 여러명의 솔리스트들이 1곡~3곡씩 연주하였다. 세계악기소개는 해설자가 해설과 함께 악기를 소개하며 연주하는 공연 형태를 가졌다.

3. 청소년을 위한 음악회 곡 분석

연구자가 조사한 152회의 ‘청소년을 위한 음악회’에서 총 연주된 곡수는 1063곡이다. 그 중 위에서 분석된 131회의 서양음악공연에서 연주된 곡은 870곡, 16회의 국악공연에서는 121곡, 5회의 기타 공연에서는 66곡이다. 또한 서양음악 870곡은 성악 216곡과 기악 660곡으로 각각 분류할 수 있다.

서양음악의 성악곡에는 가곡, 오페라 아리아, 중창곡, 합창곡 등이 포함되었고, 기악곡에는 협주곡, 중주곡, 교향곡 등이 포함되었다. ‘<표Ⅲ-4> 연주된 총 곡 수’에서 제시된 성악곡과 기악곡은 ‘<표Ⅲ-1> 공연 유형’ 중 서양음악(성악, 기악, 성악·기악)공연에서 연주된 곡을 분류한 것이다. 이것은 <표Ⅲ-1>에서 분류한 것에 국한되지 않고 각각 프로그램을 개별적으로 곡명과 연주자, 협연자를 고려하여 분류한 것이다. 예를 들어 세종문화회관(대극장)에서 7월 31일에 연주된 ‘여름방학 청소년 음악회 -Summer classics’은 서울시유스오케스트라의 공연으로써 <표Ⅲ-1>에서는 ‘기악’으로 분류되었다. 그리고 세부 프로그램으로 7개의 곡이 연주되었는데 그 중 5곡은 피아노협주곡과 교향곡으로써 <표Ⅲ-4>에 기악곡으로 분류하였고, 2곡은 협연하는 성악가가 오페라 아리아와 가곡을 불렀기 때문에 성악곡으로 각각 분류하였다. 따라서 성악·기악 유형에서도 프로그램 내용에 따라 기악은 기악곡에 성악은 성악곡에 분류하였다.

국악은 121개의 곡이 연주되었는데, ‘국악’ 유형을 따로 분류하였기 때문에 16회의 국악공연에서만 연주된 것을 말한다. 예를 들어 국악유형으로 분류된 ‘경기도립국악단의 기획공연- 청소년국악여행’에서 가야금으로 연주한 피아졸라의 <리베르탱고>는 서양음악의 기악곡 이지만 국악에서

개수한 121개에 포함되었다. 마찬가지로 기타곡의 66곡도 5회의 기타공연에서만 연주된 곡을 의미한다. 이것은 음악회 유형별로 각각 특징을 잘 파악하고 분석하기 위함이다. 연구자가 이렇게 분류 하였지만 성악, 기악, 성악·기악유형은 대부분 서양음악이 연주되었기 때문에 분석이 가능하였다. 국악도 마찬가지로 대부분 국악곡이 연주되었고, 서양음악은 편곡 되어 연주하였는데 이 부분은 뒤에서 다루기로 한다.

<표Ⅲ-4> 연주된 총 곡 수²³⁾

공연 유형	곡 유형	곡 수
서양음악 공연	성악곡	216
	기악곡	660
국악공연	국악곡	121
기타공연	기타곡	66
총		1063곡

23) ‘<표Ⅲ-4> 연주된 총 곡 수’의 기악곡, 성악곡 유형은 ‘<표Ⅲ-1> 공연 유형’에서 서양음악 공연인 성악, 기악, 성악·기악 이 3가지 유형에서 연주된 곡만 분류하였다. <표Ⅲ-1>의 국악유형과 기타유형은 <표Ⅲ-4>에서 국악곡과 기타곡에 각각 따로 분류하였다.

가. 서양음악공연 곡 분석

1) 성악곡 분석

성악 216곡은 클래식과 대중음악으로 분류할 수 있는데 클래식은 178곡, 대중음악은 38곡이다. 대중음악은 영화OST, 뮤지컬, 만화영화, 동요, 게임음악 등을 포함한다. 다음은 성악곡을 세부적으로 분석해보기로 한다.

가) 클래식

(1) 시대별

성악곡 클래식 178곡의 작곡가는 총 50명으로써 이것은 작곡가를 중복하지 않고 개수한 수이다. 50명의 작곡가를 중심으로 7개의 시대별로 분류가 가능하였는데 서양 음악에서는 낭만시대가 24명으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였고, 근현대가 8명, 바로크와 고전시대가 동일하게 3명씩 있었다. 바로크 이전시대와 국민악파는 몬테베르디와 드보르작이 각각 한명씩으로 가장 적었다. 우리나라는 김규환, 김동진, 현제명, 이흥렬 등 10명의 작곡가가 포함되어 두번째로 많았다. 성악은 대부분 낭만시대로 편중되어 있음을 알 수 있는데, 이는 예술가곡이 많이 발달되었던 낭만시대의 특징을 보여준다. <표VI-1>을 참조한다.

<표Ⅳ-1> 시대별 작곡가 수²⁴⁾

시대	명
바로크 이전	1
바로크	3
고전	3
낭만	24
국민악파	1
근·현대	8
우리나라	10
총	50명

(2) 작곡가별

성악곡 클래식 작곡가별 연주 횟수를 살펴보면 베르디가 24회로 가장 많았고, 모차르트와 슈베르트가 각각 17회와 14회로 많은 부분을 차지하였다. 특히, 오페라를 많이 작곡한 베르디는 뒤의 ‘<표Ⅳ-2> 작곡가별 연주 횟수’에서는 2회의 적은 수가 연주되었지만, 성악곡에서는 그의 곡이 가장 많이 연주되었음을 볼 수 있다. 가곡의 왕이라고 불리는 슈베르트와 슈만과 브람스의 곡은 모두 가곡이 연주되었다. 카푸아는 5곡 모두 <오 나의 태양>이 연주되었다. 또한, 우리나라 작곡가는 기악곡 분류에서는 거의 찾아볼 수 없었으나, 성악곡에서는 김동진, 김규환 등의 작곡가가 있었다. 김규환의 곡은 ‘님이 오시는지’와 ‘남촌’이 연주되었다.

24) 시대별로 작곡가를 나눌 때, 홍세원의 ‘서양음악사’ p.38, p.148, p.230~231, p.332, p.426~427, p.550~551에서 제시된 작곡가별 년도와 시대를 중심으로 하였다.

<표 IV-2> 작곡가별 연주 횟수

작곡가	횟수	작곡가	횟수
베르디	24	카푸아	5
모차르트	17	쥘리아노	4
슈베르트	14	헨델	4
브람스	10	김동진	3
푸치니	9	김규환	3
도니체티	7	드보르작	3
구노	6	레온카발로	3
드뷔시	6	레하르	3
비제	6	롯시니	3
슈만	6	3회 미만	37
슈트라우스	5	총	178회

(3) 장르별

성악곡 클래식은 5개의 장르별로 분류가 가능하였다. <표IV-3>에서 살펴보면, 오페라가 89회로 가장 많았는데 여기에는 오페라에서 연주되는 아리아, 중창, 합창이 포함되었다. 여러 나라의 외국 가곡은 60회였고, 우리나라 가곡은 16회로 상대적으로 적게 연주되었다. 또한, 반주 유형과는 상관없이 분류 하였는데 같은 곡이라도 오케스트라, 실내악, 피아노 등으로 다양하게 반주되었다.

<표IV-3> 장르별 연주 횟수

유형	횟수
오페라	89
외국 가곡	60
우리나라 가곡	16
기타장르(흑인영가, 칸초네)	8
초기음악(모테트, 마드리갈, 그레고리안)	5
총	178회

(4) 곡명별

곡명별로 살펴보면 오페라 아리아가 대부분을 차지한다. 오페라 아리아를 분류할 때는 오페라 제목으로 통합하여 분류하였다. 그 중 베르디 오페라 <라 트라비아타>와 오페라 <리콜레토>가 각각 11회와 9회로 가장 많이 연주되었다. <라 트라비아타>의 11곡 중에서도 ‘축배의 노래’가 7곡을 차지하였고, <리콜레토>에서는 9곡 중 6곡이 ‘여자의 마음’이었다. 푸치니의 오페라<잔니스키키>는 5곡 모두 ‘오 사랑하는 나의 아버지’였다. 가곡 중에서는 카푸아의 <오 나의 태양>이 5회로 가장 많았고 표에는 제시되지 않았지만 우리나라의 <신아리랑>과 <님이오시는지>도 각각 2회씩 연주되었다.

이 외에도 1회씩만 연주되어서 표에 제시하지 못한 <라보엠>, <나부코>를 비롯한 오페라와 가곡이 69곡이나 있었다. 또한 작곡가 슈베르트와 브람스, 슈만은 <표IV-2>에서는 많은 횟수를 차지했지만, 그들의 가곡은 다양한 작품들이 연주되었기 때문에 중복 횟수로는 많지 않았다. <표IV-3>에서 보면 외국가곡은 오페라만큼 연주 횟수는 많았지만 다양한 곡들이 1곡씩만 연주 된 경우가 많기 때문에 횟수로 분류한 <표IV-4>에서는 오페라보다 현저히 적게 개수되었다.

<표Ⅳ-4> 곡명별 연주 횟수

작곡가	곡명	횟수
베르디	오페라<라 트라비아타> ²⁵⁾	11
베르디	오페라<리골렛토> ²⁶⁾	9
모차르트	오페라<피가로의결혼>	6
모차르트	오페라<마술피리>	5
푸치니	오페라<잔니스키키> ²⁷⁾	5
카푸아	가곡<오나의태양>	5
구노	오페라<로미오와줄리엣>	4
비제	오페라<카르멘>	4
드보르작	오페라<루살카>	3
도니제티	오페라<사랑의묘약>	3
비제	오페라<진주잡이>	3
3회미만 공연		120
총		178회

25) 中 ‘축배의 노래’ 7곡

26) 中 ‘여자의 마음’ 6곡

27) 中 ‘오 사랑하는 나의 아버지’

나) 대중음악

성악곡 대중음악 영역은 가요, 팝송, 뮤지컬, 영화음악 등과 같은 곡이 포함된다. <표IV-5>에서 연주 횟수를 살펴보면 뮤지컬<지킬박사와하이드>의 ‘지금 이순간’이 가장 많았고, 가요<여러분>, 팝송<마이웨이>가 다음을 이었다. 이 곡들은 ‘아이러브 클래식 현대엠코 청소년 해설 음악회’에서 연주 되었는데, 이 음악회가 동일한 프로그램으로 5회 공연을 했기 때문에 이렇게 결과가 나오게 되었다. 반대로 뮤지컬 <웨스트사이드 스토리>의 ‘Tonight’은 여러 공연에서 연주되었다. 성악곡에서는 기악곡과는 달리 대중음악영역의 곡이 특별히 ‘많이 연주되었다’ 하는 곡이 적었다.

<표IV-5> 대중음악 연주 횟수

곡명	횟수
뮤지컬<지킬박사와하이드>	6
가요<여러분>	5
팝송<마이웨이>	5
뮤지컬<웨스트사이드스토리> ²⁸⁾	4
뮤지컬<남태평양>	2
뮤지컬<오페라의유령>	2
1회 연주	14
총	38회

28) 번스타인의 <웨스트사이드스토리>는 클래식으로 분류하기도 하지만 ‘뮤지컬’ 장르와 함께 제시되어 있었으므로 대중음악영역에 포함하였다.

2) 기악곡 분석

기악 660곡은 클래식과 대중음악으로 분류할 수 있는데 그 중 클래식은 583곡, 대중음악은 77곡으로 분류 되었다.

가) 클래식

(1) 시대별

기악곡 클래식 583곡의 작곡가는 122명이었으며, 작곡가를 시대별로 분류하면 성악곡에서 가장 적었던 근·현대가 66명으로 가장 많았고, 낭만시대 작곡가는 두 번째로 많았다. 근·현대에는 익숙하지 않은 작곡가들이 많이 포함되어 있었지만, 우리나라 작곡가는 단 한명 뿐이었다. 작곡가는 중복하지 않았다. <표 V-1>을 참조한다.

<표 V-1> 시대별 작곡가 수²⁹⁾

시대	작곡가 수
바로크 이전	1
바로크	4
고전	10
낭만	32
국민악파	7
근·현대	66
우리나라	1
총	122명

29) ‘<표IV-1> 시대별 작곡가 수’를 분류한 기준과 동일하다.

(2) 작곡가별

기악곡에서 클래식은 583곡이 연주 되었는데 그 중 모차르트 곡이 60회로 가장 많았다. 이후로 피아졸라가 40회, 베토벤이 26회 연주되었다. 모차르트 곡은 오페라 서곡을 비롯하여 교향곡, 협주곡, 피아노 소나타, 피아노 트리오 등 다양한 장르가 연주되었다. 그에 반해 피아졸라는 반 이상이 탱고였으며, 차이콥스키는 교향곡과 발레곡이 많았다. 쇼팽과 리스트는 피아노곡이 차지했으며, 각각 12회와 8회가 연주된 비제와 로시니의 곡은 대부분 오페라 서곡이었다. 청소년들이 익숙히 아는 작곡가들이 대부분 많은 횟수를 차지한 반면, 1회를 연주한 작곡가는 45명이나 되었다. 익숙하지 않은 작곡가들이 대부분인데, 이는 연주자들이 기존에 많이 연주된 곡들에서 벗어나 다양한 레파토리를 시도하는 것으로 보여 진다. 또한, <표 V-2>에는 5회 연주까지만 제시하였으며 같은 프로그램으로 여러 번 공연된 경우도 상관없이 중복하였다.

<표 V-2> 작곡가별 연주 횟수

작곡가	횟수	작곡가	횟수
모차르트	60	리스트	10
피아졸라	40	멘델스존	10
베토벤	26	쇼팽	10
생상	21	엘가	10
슈트라우스	17	쇼스타코비치	9
차이코프스키	17	룻시니	8
하이든	16	바하	8
브람스	15	브리튼	7
그리그	14	사라사테	7
드뷔시	14	파헬렐	7
비발디	14	베버	6
거슈인	12	크라이슬러	6
드보르작	12	라벨	5
비제	12	볼링	5
슈만	12	프레토리우스	5
슈베르트	11	5회미만	146
헨델	11	총	583회

(3) 곡명별 연주 횟수

기악곡 곡명은 악장별이 아닌 큰 제목별로 분류하였다. 예를 들어 <동물의 사육제> 중 <백조>를 연주하였을 경우, 큰 제목인 <동물의 사육제>로 분류 하였다. 또한, 교향곡 중 한 악장만 연주했을 경우도 모두 포함시켰다.

연주된 기악곡 프로그램을 살펴보면 생상의 <동물의 사육제>와 피아졸라의 <리베르탱고>가 12회로 가장 많이 연주된 곡임을 알 수 있다. 특별히 피아졸라는 <리베르탱고>, <부에노스아이레스의사계>, <망각>, <아디오스노니노> 곡이 모두 높은 연주 횟수를 가졌으며, 탱고음악이 많이 연주되었음을 알 수 있었다. 또한 쇼스타코비치의 <왈츠모음곡제2번>이나 브람스의 <헝가리무곡>같은 춤곡도 많은 수를 차지하였다.

공연장에서 많이 연주된 기악곡 프로그램들은 교향곡 보다는 소품이나 중주곡이 많음을 알 수 있었다. 그리고 <표V-3>에서 제시되지 않은 4회 미만의 곡이 430회였는데 한번만 연주된 곡이 무려 234곡이나 되었다.

<표 V-3> 곡명별 연주 횟수

작곡가	곡명	횟수
생상	동물의 사육제 ³⁰⁾	12
비제	오페라<카르멘>	10
비발디	사계 ³¹⁾	9
엘가	사랑의인사	9
모차르트	아이네클라이네나흐트무지크	9
차이코프스키	호두까기인형	9
피아졸라	부에노스아이레스의 사계	7
모차르트	작은별변주곡	7
파헬벨	캐논	7
드뷔시	글리웍스의케이크웍	6
피아졸라	망각	6
피아졸라	아디오스노니노	6
쇼스타코비치	왈츠모음곡 제2번	6
드뷔시	갈색머리의소녀	5
베토벤	교향곡 제5번<운명>	5
모차르트	오페라<피가로의결혼>서곡	5
브리튼	청소년을위한관현악입문	5
프레토리우스	텡시코어5개의무곡	5
브람스	헝가리무곡	5
생상	죽음의무도	4
번스타인	청소년음악회	4
거슈인	파리의미국인	4
프로코피예프	피터와늑대	4
리스트	헝가리안랩소디	4
4회 미만		430
총		583회

(4) 곡명별 연주형태

성악곡은 ‘장르별’로 분류가 가능하지만 기악곡은 워낙 다양한 악기 구성으로 그 기준이 불분명하기 때문에 ‘연주형태’로 분류하였다. <표 V-3>에서 분석된 곡들이 어떠한 형태로 연주되었는지를 분석하는 형식이다. ‘동물의 사육제’는 본래 관현악합주로 연주되는 곡이지만, 여기서는 피아노(2)와 실내악(6)으로도 연주되었으며, 호두까기인형은 발레모음곡으로써 마찬가지로 관현악합주로 연주되는 곡이지만, 피아노(3)와 실내악(1)의 형태로도 연주되었다. 베토벤의 교향곡 제5번 <운명>은 관현악 합주로 연주되는 교향곡이지만, 피아노(2)와 실내악(1)으로 편곡되어 연주되었으며, ‘사랑의 인사’와 ‘부에노스아이레스의 사계’는 각각 구성된 악기 종류는 조금씩 차이가 있지만 모두 실내악으로 연주되었다. 4회씩 연주된 <파리의 미국인>, <피터와 늑대>는 본래 관현악합주곡인데, 연주된 4회 중에서 각각 1회씩은 현악합주로, 실내악으로 다양하게 편곡되었다. <표 V-4>를 참조한다.

-
- 30) 생상의 ‘동물의 사육제’는 14곡으로 구성된 모음곡이다. <서주와 사자왕의 행진> <수탉과 암탉> <당나귀> <거북이> <코끼리> <강거루> <수족관> <귀가 긴 등장인물> <숲속의 뽀꾸기> <커다란 새장> <피아니스트> <화석> <백조> <종곡>으로 이루어져있다. 여기서 전곡이 연주된 경우는 3회였고, 대부분 한 곡씩만 연주되었으며 곡명이 정확히 제시된 것 중에서는 <백조>가 5회 연주되었다. (출처: 브리태니커 www.britannica.co.kr)
- 31) 비발디 ‘사계’는 <봄> <여름> <가을> <겨울>로 이루어진 모음곡이다. 전곡이 연주된 경우는 1회였으며 <봄>은 1회, <여름>은 6회가 연주되었으며, 나머지 1회는 어떤 계절을 연주하는지 명확히 제시되지 않았다.

<표 V-4> 곡명별 연주 형태

곡명(회)	연주형태	횟수
동물의 사육제(12)	피아노 ³²⁾	2
	실내악	6
	관현악합주	4
오페라<카르멘>(10)	피아노	7
	실내악	2
	관현악	1
사계(9)	실내악	3
	현악합주	6
사랑의 인사(9)	실내악	9
아이네클라이네나흐트무지크(9)	피아노	2
	실내악	6
	현악합주	1
호두까기인형(9)	피아노	3
	실내악	1
	관현악합주	5
부에노스아이레스의 사계(7)	실내악	7
작은별변주곡(7)	피아노	4
	실내악	1
	현악합주	2
캐논(7)	피아노	1
	실내악	2
	현악합주	2
	관현악합주	2
콜리웍스의케이크웍(6)	실내악	6
망각(6)	실내악	6
아디오스노니노(6)	피아노	4

	실내악	2
왈츠모음곡 제2번(6)	실내악	4
	관현악합주	2
갈색머리의소녀(5)	실내악	5
교향곡 제5번<운명>(5)	피아노	2
	실내악	1
	관현악합주	2
오페라<피가로의결혼>서곡(5)	피아노	1
	관현악합주	4
청소년을위한관현악입문(5)	관현악합주	5
텃시코어5개의무곡(5)	실내악	5
헝가리무곡(5)	피아노	1
	실내악	3
	관현악합주	1
죽음의무도(4)	피아노	3
	실내악	1
청소년음악회(4)	관현악합주	4
파리의미국인(4)	현악합주	1
	관현악합주	3
피터와늑대(4)	실내악	1
	관현악합주	3
헝가리안랩소디(4)	피아노	3
	관현악합주(협연)	1
4회 미만		430
총		583회

32) 여기서 피아노로 분류한 유형은 독주나 2대 이상의 피아노로 연주한 곡을 포함한다.

나) 대중음악

영화OST, 가요, 동요, 게임음악 등은 대부분 작곡자가 제시되지 않아 제목으로 분류하였다. 영화음악이 많은 부분을 차지하였는데 그 중 영화 <스팅>이 8회로 가장 많았다. 만화<미녀와야수>의 ‘beauty and the beast’가 5회, 영화<미션>의 ‘가브리엘의 오보에’와 <캐리비안의 해적>, 영화<여인의향기> 주제곡은 4회 연주 되었다. <표V-5>를 참조한다.

<표V-5> 대중음악 연주 횟수

곡명	횟수
영화<스팅> ³³⁾	8
만화영화<미녀와야수>	5
가요<Gee>	5
가요<Maybe>	5
영화<미션>	4
영화<여인의향기>	4
영화<캐리비안의해적>	4
영화<오즈의마법사>	3
영화<007>	2
영화<사운드오브뮤직>	2
영화<슈퍼맨>	2
영화<오페라의유령>	2
영화<타이타닉>	2
1회 연주	29
총	77회

33) 영화<스팅>에서 연주된 곡 전체를 개수 하였다. 즉, 래그타임(5회), The Entertainer(2회), Easy winner(1회)를 합쳐 총 8회로 분류하였다.

나. 국악공연 곡 분석

1) 장르별

국악은 총 16회의 공연에서 121개의 곡이 연주 되었다. 연주 유형을 고려하여 크게 전통국악, 창작국악, 퓨전국악, 기타로 나누고 다시 세부적으로 분류하였다.

전통국악에서 민요는 새야새야, 자진방아타령, 경북궁타령, 너영나영 등 다양하게 연주되었는데 합창단과 국악관현악단의 연주도 포함하였다. 정악에는 정가를 포함하여 12가사와 사설시조, 경기소리, 수제천이 연주되었고, 판소리는 사랑가와 수궁가 등이 연주되었다. 전통무용에는 무용단이 출현하여 태평무와 처용무를 공연 하였고, 사물놀이 팀도 삼도농악가락과 판굿을 벌렸다. 북청사자춤과 봉산탈춤 공연도 3회 있었다.

창작국악에서는 모두 현대작곡으로 작곡-최성환과 편곡-이인원의 ‘아리랑’이 3곡, 현재 국악 앙상블로 활동하고 있는 그룹 ‘미지’가 현대적 느낌으로 재해석한 ‘군밤타령’이 포함되었다. 또한, 정동희의 ‘월광’, 양방언의 ‘제주의 왕자’와 ‘프론티어’ 등 쉽게 들어보지 못한 공연들이 소개되었다.

국악은 특별히 퓨전국악 유형이 많은 비중을 차지하였다. ‘사랑가’와 ‘뱃노래’를 아카펠라로 부른 것과 첼로앙상블이 ‘군밤타령’을 연주한 것은 ‘국악을 서양악기로’유형에 분류하였다. 반대로 ‘서양음악을 국악기로’ 연주한 유형은 더 많았는데, 여기에는 오페라, 외국민요, 탱고와 같은 서양음악을 국악 관현악단이나 판소리로 연주한 공연들이 포함된다. 가야금 4중주는 ‘Green Sleeves’, ‘Stairway to heaven’과 같은 대중음악(가요)을 국악으로 연주하기도 했는데 이처럼 국악공연은 다양한 장르로 구성되어

있음을 알 수 있었다. 그리고 단순히 연주 뿐 아니라 ‘다문화 버무리기 쇼’라는 주제로 국악뮤지컬과 비보이의 화려한 판놀음도 공연되어 다양한 볼거리를 제공하였다. <표VI-1>을 참조한다.

<표VI-1> 장르별 연주 횟수

유형		횟수
전통국악 (61)	민요	31
	정악	8
	판소리	14
	전통무용	3
	사물놀이	2
	탈춤	3
창작국악 (24) ³⁴⁾	현대작곡	24
퓨전국악 (34)	국악을 서양악기로	5
	서양음악을 국악기로	15
	영화, 가요	9
	공연(뮤지컬,비보이)	5
기타 (2)	중국무용 ³⁵⁾	2
총		121회

34) 창작국악은 현대 작곡가들에 의해 새롭게 창작된 국악을 뜻하기 때문에 ‘현대작곡’이라는 하위영역을 설정하였다. 여기서는 새롭게 창작된 국악 뿐 아니라, 기존에 있던 멜로디를 단지 모티브로만 사용하여서 새로운 형식과 현대적으로 창작된 국악이 포함된다.

35) 국악공연 ‘청소년을 위한 여름방학 국악 콘서트! 2010 국악짱! 재미짱!’에서 공연된 프로그램이다.

2) 곡명별

국악 중에서는 판소리 <춘향가>의 ‘사랑가’가 가장 많이 연주되었고, ‘너영나영’이 7회, 쑥대머리가 5회 연주되었으며 아리랑은 편곡된 곡을 포함하여 4회 연주되었다. 3회 연주된 곡 중에서 동일한 프로그램으로 세 번을 공연한 ‘경기도립국악단’과 ‘예술단미르국악연주팀’의 연주를 제외하면, ‘수제천’과 ‘비보이 <판놀음>’이 여러 연주회에서 공연 되었다. 마찬가지로 4회 연주된 곡 중에서 동일한 프로그램으로 네 번을 공연한 곡을 제외하면 ‘새야새야’와 ‘아리랑’이 여러 연주회에서 공연되었다. 또한 가야금4중주가 연주한 ‘Green Sleeves’, ‘Classical Gas’, ‘Stairway to heaven’처럼 특이하게 제목이 영어로 된 곡도 있었다. 민요 뿐 아니라 ‘죽청사자춤’ 이나 ‘태평무’ 같은 공연도 1회씩 연주되었다. <표VI-2>를 참조한다.

<표VI-2> 곡명별 연주 횟수

곡명	횟수	곡명	횟수
사랑가 ³⁶⁾	10	방금들린그목소리 ³⁷⁾	3
너영나영	7	비보이-판놀음	3
쑥대머리	5	소아쟁협주곡	3
자진방아타령	5	수제천	3
남도아리랑	4	신밧놀이	3
도라지타령	4	영화<여인의향기>	3
민요연가	4	한오백년	3
새야새야	4	회심곡	3
아리랑	4	3회미만	47
리베르탱고	3	총	121회

36) ‘사랑가’는 판소리 뿐 아니라 ‘퓨전국악’ 유형에서 연주 된 것도 모두 포함하였다.

37) 롯데시니 오페라<세빌리아의 이발사> 중

다. 기타공연 곡 분석

기타공연에는 공연 유형에서 분류되지 않은 오르간, 핸드벨, 기타앙상블, 밴드, 악기소개를 하는 연주회가 포함된다.

오르간 연주는 솔리스트 6명이 각각 1곡~3곡을 연주하였다. 바하의 ‘칸타타’, ‘토카타와 푸가’, ‘서주와 푸가’ 그리고 차이콥스키의 ‘호두까기인형’, 무소르그스키의 ‘전람회의 그림’ 등이 연주되었다.

핸드벨은 중주 팀으로 연주되었다. ‘복의근원강림하사’, ‘죄짐맡은우리구주’, ‘할렐루야’, ‘동방박사’와 같은 찬송가가 편곡으로 연주되었다. 뿐만 아니라 ‘여인의 향기’, ‘카르멘 모음곡’, ‘녹턴’과 같은 음악과 영화<오페라의 유령>, <캐리비안의해적>도 연주되었다.

기타연주는 기타과르텟 팀의 공연이며, 피아졸라의 ‘리베르탱고’를 제외하고는 익숙하지 않은 작곡가와 영어로 된 곡명이 대부분이었다.

밴드와 보컬로 구성된 밴드공연은 대중가요가 아닌 새로운 곡을 연주하였다. 천상병 시인의 글로 8곡을 연주하였고, 밴드 자신들의 곡과 송창식의 ‘고래사냥’이 연주되었다.

세계악기를 소개하는 공연은 해설자가 무대 위에서 직접 세계의 여러 악기를 소개하고, 그 악기로 다양한 종류의 곡을 연주한다. ‘사랑의 인사’와 ‘오나의태양’ 같은 곡 뿐 아니라, 아리랑부터 멕시코, 체코, 페루의 민속음악과 아르헨티나 탱고, 중국가요, 미국재즈 까지 여러 나라의 음악을 소개하였다.

기타공연에서는 몇 개의 곡을 제외하고는 중복되는 곡이 없었으며, 연주하는 악기구성이 특별하기 때문에 익숙한 곡들도 모두 편곡되어 연주되었음을 알 수 있다.

IV. 공연 후기와 특징이 있는 음악회

1. 공연 후기

홈페이지에 기재된 공연후기를 통해서 관람자들의 공연 평을 알 수 있었다. 청소년을 위한 음악회가 열린 18곳의 공연장 홈페이지에는 대부분 공연후기를 작성하는 공간이 있다. 해당 공연장 홈페이지에 공연후기를 작성하는 사람은 극히 드물었지만, 인터파크와 같은 예매사이트에는 보통 2개~10개정도의 공연후기가 올라와 있었다. 또한 청소년 음악회이지만 후기를 작성하는 사람은 아이들과 함께 음악회를 관람한 어른들이 많았고, 검색사이트 네이버, 다음 검색창에 공연제목을 입력하였더니 청소년들은 개인 블로그나 카페 등에 사진과 함께 제시하는 경우가 많았다. 다음은 연주회를 직접 관람한 관객들이 올린 공연후기에 대한 분석이다.

가. 좋았던 점

공연을 관람했던 관객들의 후기를 살펴보면, 곡에 대한 설명과 해설이 어려웠던 클래식을 감상하는데 많은 도움이 되었고 좋았다는 의견이 많았다. 또한 친숙한 곡들이 많이 연주되어 흥미로웠고, 음악회가 감동과 재미가 있어 나중에 다시 한번 참여하고 싶다는 평도 많았다. 아이들과 함께 온 어른들은 비싸지 않고 부담스럽지 않은 입장료에 질 높은 클래식 음악을 감상할 수 있어서 좋았다는 후기가 있었다. 다음은 공연 후기에 좋았던 점을 올린 내용이다.

1) 곡 이해를 돕는 해설이 좋았다.

‘아이들의 눈높이에 맞춘 쉬운 해설이 좋았다’³⁸⁾

‘기대했던 것 보단 해설이 있으니 알아듣기 편했다..’³⁹⁾

‘아기자기한 목관5중주와 친절한 해설이 곁들여져 유익한 시간이 되었습니다’⁴⁰⁾

‘해설도 간간히 해주셨기 때문에 더욱 도움이 되었습니다’⁴¹⁾

‘지휘자님이 곡 시작 전에 살짝 살짝 설명도 해주셔서 이해도 쉽게 되고 너무 좋았어요^^’⁴²⁾

‘길고 지루하기만 했던 클래식음악이 지휘자분의 친절한 설명과 잘 정리되어있는 팸플릿을 통해 쉽고..’⁴³⁾

‘중간 중간에 성우분이 설명해주셔서 부담 없었던 공연이었답니다.’⁴⁴⁾

음악도 아는 만큼 들리는 것처럼 해설을 들음으로써 곡에 대한 이해와 흥미를 가질 수 있기 때문에 특히 해설을 결부시킨 청소년 음악회가 많은 것 같다. 더불어 지휘자나 해설자가 직접 해설을 함으로써 관객들과 소통할 수 있다는 것이 큰 장점이기도하다.

38) 이럴 때 이런 음악

http://bsearch.interpark.com/dsearch/ticket.jsp?query=청소년_음악회 에서 공연명을 클릭하고 ‘관람후기’란에서 후기내용의 일부분을 제시하였다. 후기 각주출처가 동일함.

39) 이럴 때 이런 음악

40) 친근한 클래식 시리즈

41) 제1회 여름방학 청소년을 위한 해설음악회

42) 교과서에 나오는 클래식음악 특별공연

43) 교과서에 나오는 클래식음악 특별공연

44) 경기필하모닉 청소년 여름예술여행

2) 한번쯤 들었던 음악이라 친근했다.

‘뮤지컬 ost 등 친숙한 노래들을 성악가의 목소리로 만나볼 수 있었 습니다’⁴⁵⁾

‘내가 평소에 들던 음악들이 클래식이라는 것을 깨닫고 좀 저 흥미를 느낄 수 있었던 알 찬 시간이었네요~’⁴⁶⁾

‘친숙하고 어렵지않은 곡들로 즐겁게 즐겼습니다’⁴⁷⁾

‘청소년의 눈높이에 맞춘 선곡과 해설 모두 좋았습니다’⁴⁸⁾

‘대부분 청소년들은 클래식을 별로 좋아하지 않지만 이번 클래식은 슈퍼마리오를 클래식으로 해서 재밌었고, 우리 귀에 익숙한 오버 더 레인보우 라는 발라드곡도 더 깊이 있게 들을 수 있어서 지루하지 않았습시다!’⁴⁹⁾

‘대중적으로 많이 들던 베토벤의 운명이나 모차르트 교향곡 등이 나와 서 더 반가웠던 것 같고...’⁵⁰⁾

TV나 영화에서 한번쯤 들어봤던 곡을 실제로 무대를 통해 감상했을 때 음악에 대한 관심이 생기게 된다. 청소년을 위한 음악회에는 처음으로 공연장에서 클래식을 감상하는 학생들이 많을 텐데 이들이 클래식에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쉽게, 재미있는 곡을 많이 연주하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이것은 앞에서 영화나 가요, 팝송과 같은 곡들의 연주 횟수가 높은 것에서도 보여준다. 그렇다고 너무 흥미위주의 곡 편성은 적절하지 않기 때문에 프로그램 구성을 신중하게 해야 할 것이다.

45) 이럴 때 이런 음악

46) 이럴 때 이런음악

47) 이럴 때 이런음악

48) 스마트 클래식 시리즈

49) 스마트클래식

50) 교과서에 나오는 클래식음악 특별공연

3) 음악회가 재미있다.

‘나의 고정관념(음악회는 재미없다)을 깨고 의외로 너무 재미있고,
듣는 내내 아름다운 피아노와 플룻 소리 때문에 넋을 놓아버렸다.’⁵¹⁾
‘특히 두 딸이 탱고음악과 피아노 연주에 감동하더라고요.’⁵²⁾
‘기회가 닿는다면 한번 더 듣고 싶습니다.’⁵³⁾
‘학교 음악 숙제라 억지로 갔는데 생각보다는 마음이 편안해졌다.
학교에서 짜들었던 머리와 마음들이 하나둘씩 정화 되면서 맑아
졌다. 음악회를 계기로 클래식에 대한 나의 생각과 마음이 조금씩
변화 되어 가는 걸 느낀다.’⁵⁴⁾
‘아들이 다음 방학에도 또 왔으면 좋겠다고 합니다.’⁵⁵⁾
‘평소 생각했던 클래식 공연은 웬지 엄숙하고 약간은 지루할 것 같다
는 느낌을 완전히 벗어난 공연이었던 것 같아요.’⁵⁶⁾
‘공연시간이 재미있고 짧게만 느껴졌습니다. 이런 좋은 공연을 많은
사람들이 함께 했으면 좋겠습니다.’⁵⁷⁾
‘음악회에 또 가고싶게 만든 음악회였습니다ㅎㅎ’⁵⁸⁾

음악회에서 라이브로 듣는 실제 악기소리와 음악이 감동과 재미를 주었다는 것은 참 좋은 점이다. 어렵고 지루하다는 클래식에 대한 고정관념을 청소년 음악회를 통해 벗어날 수 있도록 다양한 접근방법이 필요하며, 더불어 연주자는 다시한번 듣고 싶고, 다른 사람에게 소개하고 싶은 음악회를 만들어야 할 것이다.

51) 2010 프로아트 청소년음악회 클래식비타민

52) 이럴 때 이런 음악

53) 친근한 클래식 시리즈

54) 제11회여름방학청소년을위한해설음악회

55) 1회 여름방학 팡팡 청소년 해설음악회

56) 교과서에 나오는 클래식음악 특별공연

57) 교과서에 나오는 클래식음악 특별공연

58) 번스타인의 청소년 음악회

4) 청소년들의 교육에 유익하다.

‘요즘 아이들은 대중음악에 심취하다보니 서양고전음악을 들을 기회가 적은데, 이런 기회를 빌어 정서함양에 도움이 되는 것 같다.’⁵⁹⁾
‘평소에 클래식 음악을 많이 접할 기회가 없었는데.. 클래식음악에 좀더 다가갈 수 있었던 것 같네요^^’⁶⁰⁾
‘클래식에 대한 흥미를 갖게 되고 공부도 되어 좋은 것 같다’⁶¹⁾
‘아이들에게 클래식에 대한 편한 이미지를 가지게 하고, 음악을 잘 이해 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 음악회였다.’⁶²⁾
‘클래식에 관심이 없는 청소년들도 직접 생생한 공연을 눈으로 보면서 집중하는 모습이 눈에 띄더군요’⁶³⁾
‘요새는 너무 대중음악에 아이들이 노출되어 있어 정서적으로 그리 좋지 않은데, 클래식을 접함으로써 다양한 음악적인 세계를 들려줄 수 있어 좋은 기회가 된 것 같네요.’⁶⁴⁾
‘음악을 더 잘 이해할 수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앞으로도 이런 기회가 많았으면 좋겠습니다.’⁶⁵⁾

대중음악에만 익숙한 청소년들이 음악회를 참여하여 클래식을 감상한다는 것은 살아있는 음악 교육이 될 수 있다. 또한 음악회를 통한 음악교육이 좋은 계기가 되었다면, 한번이 아니라 계속적으로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꾸준한 음악회 참여도 필요할 것이다.

59) 이럴 때 이런 음악

60) 교과서에 나오는 클래식음악 특별공연

61) 교과서에 나오는 클래식음악 특별공연

62) 번스타인의 청소년 음악회

63) 경기필하모닉 청소년 여름예술여행

64) 경기필하모닉 청소년 여름예술여행

65) 1회 여름방학 팡팡 청소년 해설음악회

5) 부담스럽지 않은 입장료

‘부담없는 가격에 높은 품질의 클래식 음악을 들을 수 있었습니다.’⁶⁶⁾

‘저렴한 가격 대비 퀄리티 높은 음악회라 생각된다.’⁶⁷⁾

‘티켓값도 저렴하고, 아이를 가지신 부모님이나 중,고,대학생한테 추천하고 싶네요~’⁶⁸⁾

‘대중에게 저렴한 비용에 볼 수 있는 기회라 넘 좋았어요’⁶⁹⁾

‘티켓값이 저렴해서 온가족이 보기에도 참 좋았습니다’⁷⁰⁾

연주회도 연주회별로 티켓 값이 다양하다. 청소년 음악회에서는 청소년의 티켓 값을 따로 제시하기도 했는데, 학생은 전석 20,000원에서 50%할인⁷¹⁾ 이나, 전석 15,000원에서 학생은 20%할인⁷²⁾, 어른이 15,000원이라면 학생은 10,000원으로 할인하는 경우가 있었다. 또한 특별히 학생 할인이 없는 연주는 R석-20,000원/S석-15,000원/A석-10,000원⁷³⁾ 처럼 좌석별로 선택할 수 있게 되어있었다. 물론 더 비싼 티켓 값도 있었지만 대부분 다른 음악회에 비해 저렴하였다.

66) 이럴 때 이런 음악

67) 제11회여름방학청소년을위한해설음악회

68) 교과서에 나오는 클래식음악 특별공연

69) 여름방학 청소년 음악회 Summer classics

70) 여름방학 청소년 음악회 Summer classics

71) 귀에 익은 클래식VII

72) 청소년음악회시리즈

73) 아이러브클래식 현대엠코 청소년 해설 음악회

6) 즐거운 국악 공연

‘평소에는 어렵고 지루할것만 같았던 국악을 쉽게 이해하고 재밌게 볼 수 있던 기회였습니다. 단지 전통 국악음악뿐만 아니라 퓨전국악과 특히 국악과 B-boy, 사물놀이가 어우러져 흥겨운 국악을 즐길 수 있어서 뜻깊은 시간이었습니다.’⁷⁴⁾

‘이번 기획은 무척 참신하였다. 정통국악의 여러 장르와 새로 기획된 장르 또한 획기적이었다.’⁷⁵⁾

‘국악이라고 하면 좀 지루하게 느껴지지 않을까 사실 좀 걱정했었는데, 전혀 그렇지가 않았고 너무 신나고 그 공연 내용 속으로 빠져 들었습니다.’⁷⁶⁾

‘국악에 대한 현대적 이해를 돕는 체계적이면서도 재미있는 공연이었습니다. 다음에도 기회가 되면 가족과 같이 보려고 합니다.’⁷⁷⁾

‘관현악으로만 접하던 음악을 국악으로도 들으니 관현악보다는 조금 작은 소리로마음이 편해지면서 여러 악기들을 볼 수 있는 기회였습니다.’⁷⁸⁾

‘작년에 처음 국악여행을 접하고 올해도 넘~좋아서 공연을 보게 됐어요.’⁷⁹⁾

국악 공연은 다들 만족스럽고 즐거웠다는 후기가 많았다. 쉽게 접하지 못하는 국악 음악회에서 자칫 지루할 것 같다는 생각을 깰 수 있도록 준비한 다양한 프로그램들이 관객들로부터 호응을 얻었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74) KBS국악관현악단 청소년음악회 Cool한 콘서트

75) 2010 국악짱! 재미짱!

76) KBS국악관현악단 청소년음악회 Cool한 콘서트

77) 2010 봄방학 특별공연

78) 경기도립국악단 기획공연 청소년국악여행

79) 경기도립국악단 기획공연 청소년국악여행

나. 아쉬웠던 점

좋은 평이 많은 만큼 아쉬웠던 점도 있었는데, 학생들의 시끄러운 관람 태도가 가장 많이 지적된 내용이었다. 공연의 특성상 청소년들이 많았는데 공연 예절에 대한 숙지가 부족하여 음악에 집중하기 어려웠고 불편했다는 의견이 많았다. 또한 해설에 대한 아쉬운 점도 있었는데, 관객에게 해설이 제대로 전달되지 않거나, 어려운 용어를 사용하여 이해에 도움을 주지 못했다는 점이 있었다. 다음은 공연 후기에 아쉬웠던 점을 올린 내용이다.

1) 시끄러운 관람태도

‘어찌나 시끄럽게 떠들고, 의자로 쿵덕쿵덕 장난을 치는지 한마디 충고를 했는데도 그대로 하던 것을 계속 해대고 있었다.’⁸⁰⁾

‘아쉬운 점은 몇몇 학생들이 공연 예절에 대한 숙지가 부족해서 공연 도중 소란을 일으켜 불편 했었다.’⁸¹⁾

‘관람객들의 부족한 에티켓’⁸²⁾

‘공연을 듣는 관람객들의 수준도 낮았던 것 같다.’⁸³⁾

‘학생들로 가득찬 공연장은 공연 중에도 시끄러워서 음악에 집중 할 수 가 없었어요.ㅠ.ㅠ’⁸⁴⁾

‘관객들이 청소년들이 대부분이어서 그런지 공연장이 좀 소란스러웠다.’⁸⁵⁾

80) 이럴 때 이런 음악

81) 이럴 때 이런 음악

82) 스마트 클래식 시리즈

83) 스마트 클래식 시리즈

84) 친근한 클래식 시리즈

85) 번스타인의 청소년 음악회

음악회의 관객 연령이 대부분 청소년이고 그들에게 친근하게 다가가는 공연을 열다 보니 관람태도가 조금은 자유롭고 어수선 할 수 있다. 하지만 이것도 하나의 음악 감상 태도 교육이기 때문에 공연을 시작하기 전에 청소년 관객들에게 공연예절에 대해 중요하게 언급하고 숙지 할 수 있도록 하는 노력이 필요할 것이다.

2) 아쉬웠던 해설

‘해설자가 좀 더 재미있게 설명을 했음 더 좋았을 것 같아요.’⁸⁶⁾

‘중간 중간 해설이 집중이 안 되었다.’⁸⁷⁾

‘해설이 있는 음악회라고 갔는데 도통 설명이 무슨 소리인지 알아들을 수가 없더라고요. 전공을 피아노로 한 것도 아니고 아이들이 많이 왔는데도 어려운 용어 사용과 무슨말을 하는건지.. 설명이 영 아니었어요. 혼자서 책 읽는 것처럼 작은 목소리로 웅알웅알.. 들리더군요.. 해설할 준비도 미처 안해보이고..’⁸⁸⁾

‘연주곡에 대한 이해부족(설명부족) 뭔가 아쉬움이 남는 공연이었다’⁸⁹⁾

‘처음 음악회에 온 학생들에게는 부족한 해설과 설명이 아쉬웠던 것 같다.’⁹⁰⁾

‘클래식은 대부분 생소하기 때문에 설명이 있는 공연을 보러 왔는데, 흥미를 끌기에는 설명이 부족했었다.’⁹¹⁾

‘생각보다 해설이 있어 좋았는데 잘 전달되지 못한 것 같아 조금은 아쉬웠다’⁹²⁾

86) 이럴 때 이런 음악

87) 이럴 때 이런 음악

88) 스마트 클래식 시리즈

89) 스마트 클래식 시리즈

90) 스마트 클래식 시리즈

91) 스마트 클래식 시리즈

92) 제11회여름방학청소년을위한해설음악회

‘해설’이라는 요소를 철저히 준비하지 않고 접목시킨다면 오히려 음악회의 질을 떨어뜨릴 수 있다. 따라서 전달하는 사람의 입장이 아니라 관객의 입장에서 필요하고 유용한 해설을 하기 위해 철저한 준비가 필요할 것이다.

3) 기타 의견

‘관객과 같이 즐기는 공연이 아닌 그냥 감상하는 그런듯한 느낌..
마지막 앵콜 때 같이 공연했다면 더운 여름에 훨씬 더 신나고 클래식이 대중가요처럼 아이들에게 친숙한 느낌이 들 거 같아요.’⁹³⁾

더욱 좋은 음악회를 위해서 관객이 의견을 제시하기도 하였다. 공연에서 관객이 함께 참여할 수 있는 음악이 있었으면 좋겠다는 의견이었다..

다. 공연후기와 답변

이렇게 공연 후기에는 긍정적인 후기 뿐 아니라 관람하면서 아쉬웠던 점이나 건의할 사항을 작성하는 경우도 많았는데, 이렇게 이 공간에서는 관람자와 공연자간의 생각을 나눌 수 있다. 다음은 홈페이지에 기재된 공연후기와 답변이다.

93) 여름방학 청소년 음악회 Summer classics

‘... (성악) 프로그램은 녹음 해 둔 것을 바로 틀어놓고 노래를 하더군요. 조용하지만, 생생한 클래식을 감상하는 이런 자리에서 녹음을 틀다니요? 그러다보니, 특히 ○○○의 순서는 거의 소음에 가까웠습니다.(중략) 이번 공연은 참으로 실망스러웠습니다. 너무나도,,, 환불요청합니다.’

‘안녕하세요? 본 공연을 주관했던 △△△입니다. 공연이 실망스러우셨다면, 죄송합니다. 하지만 공연에 대한 시각이 조금 다르신 것 같아 몇 자 올립니다.(중략) 반주를 리얼악기로 할지 MR로 할지의 여부는 그 곡을 부르는 각각의 연주자들이 결정합니다. 그 부분이 잘못되었다는 지적은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공연가격도 작년에도, 그리고 제작년에도 같은가격이었구요, 다른 공연에 비하여 높지 않습니다.(중략) 고언을 깊이새겨 더욱 좋은공연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⁹⁴⁾

관람자의 의견처럼 공연장에 가서 듣는 클래식 음악회는 기계로 녹음된 음악을 듣는 것이 아니라 지금 연주되는 생생한 음악을 듣는 것이지만, 공연자의 의견처럼 녹음반주가 이 곡에 더욱 효과적이고 더 좋은 연주를 위한 것이라면 한 두곡은 괜찮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기계에 의한 반주이기 때문에 음향과 관련해 정확하고 세심한 사전준비가 필요할 것이며, 연주자의 연주는 녹음반주를 뛰어넘는 감동과 최선의 무대를 선보여야 할 것이다.

94) 고양문화재단 청소년 음악회 공연 후기 중에서
<http://www.artgy.or.kr/CO/CO0602M.aspx?mode=V&code=525&depth=a>

2. 특징이 있는 음악회

여기서는 음악회 중에서 특별한 요소를 가진 음악회를 소개하고자 한다. ‘다른영역과 통합한 음악회’, ‘특별출현 해설자가 있는 음악회’, ‘주제가 연결되는 음악회’가 가지는 특징이 무엇인지 살펴본다.

가. 다른 영역과 통합한 음악회

단순히 음악을 들려주는 음악회에서 벗어나 시각적인 요소와 함께 새롭게 시도된 연주회가 있었다. 전문 극단의 ‘그림자극’⁹⁵⁾ 공연을 음악에 접목시킨 <그림자극으로 만나는 비발디의 사계>⁹⁶⁾는 서로 다른 장르의 예술을 조합하여 음악회를 색다르게 구성하였다. 다음은 어른들이 작성한 공연후기의 일부이다.

‘미리 암막 뒤로 들어가시더니 공연 끝에서야 다시 힘찬 모습으로 나오시더군요.. 멋있고 재미있었습니다. 아들 녀석이 음악과 그림자 영상이 잘 연결되어 좋았다는군요. 중간의 쟁난 대사도 간혹 생기는 음악만의 지루함을 느낄 수 없는 좋은 장치였다고..’⁹⁷⁾

‘너무도 잘 알려진 곡에 친숙한 목소리의 해설자(KBS FM 라디오 진행자 장일범), 재미까지 더해진 그림자극 덕분에 여름방학 음악숙제를 즐겁게 마칠 수 있었다’⁹⁸⁾

95) 극단 영 홈페이지(<http://www.theatreyoung.com/>)

‘그림자’라고 하는 것은 빛이 있는 곳에서 생겨나는 물체의 또 다른 모습이다. 그리고 ‘그림자극’이란 빛과 물체를 이용하여 여러 가지 그림자를 만들어 이야기를 꾸며 나가는 것을 말한다.

96) ‘2010 영음예술기획 해설이 있는 청소년 음악회 시즌 17-친근한 클래식 시리즈’중에서 <USP챔버앙상블콘서트 해설이 있는 청소년음악회-그림자극으로 만나는 비발디의 사계>

97) 극단 영 홈페이지 공연 후기 중에서 <http://www.theatreyoung.com/>

98) 티켓링크 공연후기

‘의외로 좀 실망이었던 것은 그림자극이었습니다. 사실 곡을 아무리 좋아해도 클래식이라 지루해 질 수도 있는 것을 보완했다고 생각되긴 하는데 공연내용이나 수준이 만족스럽지는 않더라고요. 마이크도 제대로 나왔다 안나왔다가 멀리 들렸다가 잘 들렸다가 했습니다..’⁹⁹⁾

‘해설 하시는 분 좀 힘드셨을것같구요. 그냥 가만히 서있거나 앉아있거나. 사계가 연주 될 동안도 가만히 그림자극이 진행될 동안도 잠자코 기다려야 하는데 굳이 저분이 저렇게 정장을 입고 저기에 저러고 계셔야 하나..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결론은 아이들 방학숙제용으로서는 심심치않고 팬클럽은 것 같긴 한데 음악을 감상하러 가셨던 분들은 좀 실망스런 부분이 많았던게 아닌가 싶습니다.’¹⁰⁰⁾

‘아직은 클래식을 어렵게 느낄 아이들에게 해설이 있는 음악회는 무척 좋은 아이템이라 생각되지만 음악과는 다소 동떨어진 그림자 연극을 통한 소개는 음악을 이해하기에는 오히려 방해가 되는 느낌이었습니다.’¹⁰¹⁾

공연후기를 보면 새로운 장르의 예술과 통합하니 아무래도 조금 미숙하거나 어색한 부분이 불편하다는 의견이 있었다. 하지만 새로운 시도를 했고 참신한 공연이었다는 점에서 매우 장점이 많은 음악회이다. 이러한 큰 장점이 작은 단점으로 가려지지 않도록 공연자는 철저하게 준비해야 할 것이다.

<http://ticket.interpark.com/Ticket/Goods/GoodsInfo.asp?TabIndex=4&GoodsCode=10004934#TabTop>

99) 문화충전200%(문화를 사랑하는 사람들) 공연 후기 중에서

100) 위와 동일(<http://cafe.naver.com/real21>)

101) 티켓링크 공연후기(동일)

<http://ticket.interpark.com/Ticket/Goods/GoodsInfo.asp?TabIndex=4&GoodsCode=10004934#TabTop>

<그림-4>102)

영음예술기획 해설이 있는 청소년음악회 시즌 17

USP 챔버 오케스트라의
해설이 있는 청소년 음악회
**그림자극으로 만나는
비발디의 사계**
Antonio Lucio Vivaldi
The Four Seasons - "Spring" Op.8, No.1 - 14:40
The Four Seasons - "Summer" Op.8, No.2 - 14:40
The Four Seasons - "Autumn" Op.8, No.3 - 14:40
The Four Seasons - "Winter" Op.8, No.4 - 14:40

2010년 8월 13일 (금) 오후 8시
예술의전당 콘서트홀

주최: 영음예술기획 후원: Classic

문의처: 02-581-5404 www.youngseum.com

"저것은 무엇일까?" "실제 모습은 어떨까?"

그림자극으로 비발디의 사계를 만나는 특별한 음악여행!
음악, 빛, 그림자가 조화롭게 어우러진 생생한 무대를
즐길 수 있는 눈과 귀가 즐거운 연주회!

청소년들에게 많은 상상력을 이끌어내고 흥미를 유발시키는 그림자극과
비발디의 "사계"는 아름다운 색채와 구성으로 예술의전당 콘서트홀에서
최초로 선보이는 한편의 뮤직드라마입니다.
호기심을 자극하고 창의력을 키워주는 그림자극과 음악이 함께하는
풍부한 상상력의 세계로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USP 챔버 오케스트라의 그림자극으로 만나는 비발디의 사계

매년 회를 거듭할수록 다양한 주제와 기적으로 방학을 맞은 청소년들에게 클래식에 대한 흥미유발과
정서함양에 앞장서고 있는 영음예술기획의 해설이 있는 청소년 음악회는 2010년 시즌17을 맞아
8월 13일(금) 오후 8시 예술의전당 콘서트홀에서 USP 챔버 오케스트라와 함께
그림자극으로 만나는 비발디의 '사계' 를 선보입니다.

후대폰 벨소리, 대중가요의 전주, 미니홈피 배경 음악으로 사용되기도 하는 등 우리들에게
너무나 친숙하게 알려진 비발디의 '사계' 는 현악기를 중심으로 구성된 작은 오케스트라로 연주하는
음악이지만 관현악 못지않은 풍성한 화음과 상큼한 선율로 우리의 귀를 사로잡습니다.

작곡가 비발디는 봄, 여름, 가을, 겨울의 변화를 음악으로 아주 멋지게 그려내어
새소리, 천둥소리, 개 짖는 소리를 들으면서 계절의 느낌을 떠오르게 하여 음악을 듣는 재미를
한층 높여줄 것입니다.



● 그림자극 극단 영

"사랑과 꿈이 있는 연극"을 모토로 그림자극과 인형극을 위주로 하는 무대 공연물을 제작하는 극단 영은 1982년에
창단하여 그림자극, 인형극, 뮤지컬, 아동극, 마당놀이극 등을 공연하는 전문 극단으로 인형극의 불모지였던 한국
무대예술에 활기를 주고 아울러 자라나는 어린이들에게 정서적인 감성발달과 자아발견의 기회를 부여하고자 노력
하는 극단이다.

그림자극, 인형극, 마당놀이, 마임 등의 단소 공연물과, 무대예술로 표현할 수 있는 여러 장르의 예술을 종합하여 새로운
무대예술을 창조해 가는 등 다채로운 공연활동을 하고 있으며, 1986년부터 일본 순회공연은 물론 헝가리, 독일, 체코,
등 유럽에서 열리는 국제 인형극제에 참가했으며 매년 열리는 춘천 인형극제에도 빠짐없이 참가하고 있다. 또한 한국
최초로 성인 극 대상으로 '그림자극' 전람회 그림도 제작·발표하였다.

102) 해당 포스터는 예술의전당 홈페이지 참조 <http://www.sac.or.kr/>

나. 특별출현 해설자가 있는 음악회

청소년 음악회에는 해설자가 있는 경우가 많았는데 대부분 연주자나 전문가가 해설을 맡아 곡의 이해를 돕기 위한 설명을 한다. 그런데 몇몇 공연에서는 사회자와 해설자가 연예인이나 아나운서가 출현해 관심을 끌기도 하였다. 오상진 아나운서¹⁰³⁾, 이윤아 아나운서¹⁰⁴⁾가 해설을 맡은 공연도 있었고, 아역배우 진지희¹⁰⁵⁾가 사회를 맡은 공연도 있었다. 이 중 2개의 공연은 국악공연이었는데, 사회자와 해설자에 방송인을 초대해 더욱 청소년들의 관심을 끌게 하는 요소로 삼았다. 더불어 국악공연은 다양하고 다채로운 프로그램 때문인지 긍정적인 후기가 많았다. 특별히 오상진 아나운서가 해설을 맡은 ‘여름방학 청소년 음악회 Summer classics’은 티켓 예매사이트 인터파크에서 공연후기(관람후기)가 무려 93개였다. 다음은 공연후기 중 오상진 아나운서에 대한 부분이다.¹⁰⁶⁾

‘오상진 아나운서의 깔끔한 진행과 중간중간에 유머스러움이 이 음악회를 더욱 재밌게 해준 것 같아요.’

‘오상진 아나운서 목소리도 너무 좋았고 설명도 잘 해주셨어요~’

‘지난번에는 김현진 아나운서가 진행하셔서 썸있었는데 이번엔 오상진 아나운서의 편한 진행도 썸있네요’

‘익숙한 얼굴의 아나운서의 해설 좋았다는군요’

‘처음에는 오상진아나운서가 나온다는 말에 솔깃하여 예매를 했는데 막상 가서 보니 해설이 있어서 클래식공연이지만 그렇게 딱딱하지 않았어요’

‘진행을 맡은 오상진 아나운서의 조금은 성의 없어 보이는 모습이 안타깝네요..’

103) ‘여름방학 청소년 음악회 Summer classics’ 해설자

104) ‘청소년을 위한 여름방학 국악 콘서트! 2010 국악짱! 재미짱!’ 해설자

105) ‘선생님과 함께 노래를! 우리가락을 찾아서’ 사회자

106) 공연후기 출처가 모두 동일함

<http://ticket.interpark.com/Ticket/Goods/GoodsInfo.asp?MN=Y&GroupCode=10000145&GoodsCode=10000145#TabTop>

대부분 아나운서의 해설과 위트가 즐거웠다는 의견이 많았으며, 어떤 관객은 오상진 아나운서가 출현한다고 해서 표를 예매했다고 하기도 했다. 또한 보는 사람에 따라 다르게 느끼겠지만 한 관객은 성의 없어 보이는 모습이 안타까웠다고 하였고, 위에는 제시되지 않았지만 대본 준비를 제대로 하지 않은 것 같다며 지적하기도 했다. 다음은 청소년이 올린 공연 후기이다.

‘안녕하세요? 전 8월 20일에 제 가족과 함께 텔런트 진지희 누나와 원학연 단장님께서 사회를 보시는 정기연주회를 갔었던 평촌에서는 초등학교3학년 □□□입니다. 저는 가족과 서울시 소년소녀 합창단 정기연주회를 자주오는 편인데 이번에는 더 자세히 보고 싶어서 오페라 글라스까지 대여를 하여 연주회를 보았습니다 ㅋㅋㅋ. 서울시 소년소녀합창단연주는 항상 소름이 끼치도록 좋고 아무리 높은음을 불러도 너무 아름답고 깨끗합니다. 그래서 저는 그때 마다 내 몸이 부르르 떨립니다. 지금도 ‘새야새야파랑새야’와 ‘경복궁타령’이 특히 계속 생각이 납니다.’¹⁰⁷⁾

‘안녕하세요~ 저는 “선생님과 함께 노래를!-우리가락을 찾아서” 음악회를 보고 많은 것을 느끼고 온 초등학교 4학년 ▲▲▲입니다. 소년소녀합창단의 ‘아리랑’은 언제들어도 깨끗하고 아름답습니다. 중간에 빨라지는 부분도 재미있습니다. 또 ‘새야새야 파랑새야’ 가사의 뜻이 녹두장군 전봉준 님과 일본군을 의미한다는 원학연 선생님의 해설을 듣고 노래를 들으니 더 감동이 되었습니다. ‘정가’ 라는 것은 신기했습니다. 어떻게 가만히 앉아서 저런 소리가 나올까 궁금했습니다. 역시 양반 음악이구나 생각 했습니다. 그리고 청소년 국악 관현악단의 <월광>은 이날의 연주 중 제가 가~~장 감동 있게 들은 곡입니다. 25

107) ‘선생님과 함께 노래를!’ 세종문화회관 관람후기 중에서
http://www.sejongpac.or.kr/cafe/after_view.asp?postscript_idx=1764&p=1§ion=PERFORM&perform_idx=16004

현 가야금 해금 아쟁이 아주 잘 어울려져서 달빛이 정말로 경쾌하게 비쳐지는 것 같아서 박수를 크게 쳤습니다. 진명그룹의 '삼도농악가락' 연주를 들으면서 어떻게 음이 없이도 호흡이 저렇게 잘 맞을까 감탄했습니다. 재미있고 오래 기억할 수 있게 우리음악에 대해 알려주셔서 감사합니다.^~108)

'우리동네 초등학교 6명과 함께 이 공연을 보았습니다. 우선 아이들이 너무 좋아하네요. 다음에 또 오겠다고 난리입니다. 아이들의 감상소감, 국악이 재미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학교에서 배운 것을 직접보고 들을 수 있어서 신기하다고하네요. 프로그램 책자도 아주 자세히 소개해 주셔서 공부에 도움이 된다고 하네요. 제 감상소감, 우선 딱딱하다고 느꼈던 우리 국악이 이렇게 재미있게 엮어질 수 있다는 것이 좋았습니다. 국악을 잘 접해보지 못해서 싫어하던 아이들에게 더 없이 좋은 프로그램인것 같아요. 앞으로도 더 많이 이런 공연을 통해서 국악의 대중화와 전통을 잘 조화롭게 펼쳤으면 좋겠습니다.'109)

방송인이 특별출현 하여 공연을 함께 한다면 관람하는 사람의 흥미와 관심이 커질 뿐 아니라 홍보효과 역시 좋을 것이다. 하지만 공연후기를 살펴보면 알 수 있듯이 특별히 방송인이 출현했다고 해서 공연이 좋았다는 의견보다는, 공연 자체의 구성 프로그램에 대한 평이 좋았다. 그러므로 알찬 공연 내용을 준비하는 것 보다 단순히 방송인을 내세워 홍보하는 것에 치중 한다면 좋은 공연이 될 수 없을 것이다. 정성껏 준비된 연주가 되었을 때 특별출현자의 효과가 더 크게 나타날 것이다.

108) '선생님과 함께 노래를!' 세종문화회관 관람후기 중에서
http://www.sejongpac.or.kr/cafe/after_view.asp?postscript_idx=1765&p=1§ion=PERFORM&perform_idx=16004

109) '2010 국악짱! 재미짱!' 세종문화회관 관람후기 중에서
http://www.sejongpac.or.kr/cafe/after_view.asp?postscript_idx=1758&p=1§ion=PERFORM&perform_idx=16002

<그림-5>110)



<그림-6>111)



<그림-7>112)



- 110) <그림-5> '여름방학 청소년 음악회 Summer classics' 포스터, 오상진 아나운서
 111) <그림-6> '청소년을 위한 여름방학 국악 콘서트! 2010 국악쟁! 재미쟁!' 포스터, 이윤아 아나운서
 112) <그림-7> '선생님과 함께 노래를! 우리가락을 찾아서' 포스터, 아역배우 진지희

다. 주제가 연결되는 음악회

한명의 작곡가만 소개하며 그 작곡가의 곡으로만 구성된 청소년 음악회도 있었으며, 서양음악사의 한 시대를 소개하며 그 시대의 작곡가들을 소개하며 구성된 음악회도 있었다. 이러한 주제를 가지고 연주되는 공연이 많은데, 그 중에서도 특히 시리즈 공연의 특징을 살려 연결되는 주제를 가지고 연속적으로 공연을 기획한 ‘한화와 함께하는 2010 예술의전당 청소년 음악회’를 살펴보았다.

예술의 전당이 1989년 기획한 <청소년을 위한 음악 산책>에서 시작한 공연은 1994년 <금난새와 함께 떠나는 세계의 음악여행>에서 큰 인기를 모으며 청소년 관객을 위한 해설이 곁들여진 음악회로 발전하게 되고 현재는 청소년 문화 예술 프로그램으로 자리 잡게 되었다.¹¹³⁾ 지휘자 성기선과 피아니스트 김정원이 2009년도에 ‘위대한 베토벤’을 주제로 공연을 하였고, 이어서 2010년도에는 ‘Post 베토벤’ 즉, 베토벤의 영향을 받은 작곡가 6명을 주제로 6회 공연을 열었다. 다음은 팜플렛에 기재된 공연설명이다.

‘참신하고 명쾌한 해설과 수준 높은 연주로 국내 최고의 청소년 클래식 프로그램으로 지속적인 사랑을 받고 있는 예술의전당 청소년 음악회에서는 2010년 위대한 작곡가 베토벤의 영향을 받은 작곡가 슈베르트, 베를리오즈, 슈만, 브람스, 리스트, 바그너를 주제로 하여 한층 더 업그레이드 된 시각적 효과와 다양하고 신선한 진행으로 여러분을 찾아옵니다. 다양한 작곡가들의 음악적 요소들에 대한 이해를 돕기위해 재미있는 영상이 곁들여진 쉬운 해설을 통해 클래식 음악에 한걸음 더 다가가는 2010년 <예술의전당 청소년음악회-Post 베토벤>을 통해 색다른 클래식 음악의 세계를 만나보시기 바랍니다.’¹¹⁴⁾

113) 김정연. 문화콘텐츠로서의 클래식 음악에 대한 연구. 서울: 상명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2010. p. 27

114) ‘Post 베토벤’ 공연내용 중에서

공연은 6개월에 걸쳐 열렸으며 작곡가의 특징을 나타내는 수식어를 함께 소개하여 작곡가에 대한 이해를 도왔다. <표Ⅶ-1>을 참조한다.

<표Ⅶ-1> 주제별 프로그램 >115)

날짜	소주제	곡명
5/15	가곡의 왕 슈베르트	슈베르트 교향곡 제8번 '미완성' 제1,3악장 멘델스존 바이올린 협주곡 e단조 슈베르트 가곡 슈베르트 교향곡 제9번 '그레이트' 제4악장
6/19	표제음악의 완성자 베를리오즈	베를리오즈 <로마의 사육제> 서곡 라 벨 피아노 협주곡 G장조 베를리오즈 환상교향곡
7/17	낭만문학가 슈만	슈만 '미르테의 꽃' 가곡집 중 '헌정' 슈만 피아노 협주곡 슈만 교향곡 제3번 '라인' 제1,2,5악장
9/11	베토벤의 진정한계승자 브람스	브람스 <대학축전> 서곡 브람스 바이올린과첼로를위한2중주협주곡 베토벤 교향곡 제5번 '운명' 제1악장 브람스 교향곡 제1번 제1,4악장
10/16	교향시의 창시자 리스트	베토벤 <에그몬트> 서곡 리스트 피아노 협주곡 제1번 리스트 교향시 전주곡 리스트 메피스토왈츠 제1번 리스트 헝가리안랩소디 제2번
11/20	음악극의 창시자 바그너	모차르트 오보에 협주곡 베 버 <마탄의사수> 서곡 바 그 너 <방황하는화란인> 서곡 바 그 너 <파르지팔> 전주곡 바 그 너 <트리스탄과이즈올데> 전주곡&사랑의죽음

115) 예술의전당 홈페이지 <http://www.sac.or.kr/>

<그림-8> '2010 예술의전당 청소년 음악회 Post 베토벤' 포스터116)



보통의 음악회가 다양한 곡을 연주함으로써 여러 음악을 감상했다면 이러한 형태의 공연은 한명의 작곡가에 대해 소개하고 그의 작품을 연주함으로써 좀 더 깊이 있는 이해와 감상을 도울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이러한 음악회는 하나의 주제를 가지고 연속 연결되는 시리즈 공연의 특징과도 잘 어울리는 공연형태이다. 그리고 이 음악회를 통해 더욱 효과적인 감상을 하기 위해서는 한번만 참여하는 것이 아니라 가능한 연속 참여하여 작곡가들을 비교하며 감상하는 노력이 필요할 것이다.

116) 해당 포스터는 예술의 전당 홈페이지 참조 <http://www.sac.or.kr/>

V. 결론 및 제언

청소년기는 신체적인 성장 뿐 아니라 자아와 정서, 가치관 등이 변화하고 발달하는 시기이다. 이 시기에 경험하는 다양한 음악적 활동은 성숙하고 조화로운 인격형성에 도움을 주기 때문에 청소년들에 대한 음악교육은 매우 중요하다. 청소년들의 음악 감상 실태를 조사한 자료를 보면 대부분의 학생이 대중가요를 듣는 것에 편중되어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청소년들에 대한 음악교육은 매우 중요하며, 교실 안 수업 뿐 아니라 교실 밖 음악회를 통한 직접적인 감상과 음악적 경험이 필요하다. 따라서 연구자는 청소년들이 공연 타이틀을 보고 쉽게 접할 수 있는 ‘청소년을 위한 음악회’에 관심을 갖고, 음악회의 현황을 파악하며, 프로그램 내용을 조사·분석 하였다.

첫째. 청소년을 위한 음악회의 연주 현황을 분석한 결과 90%가 청소년들의 방학기간에 열렸음을 알 수 있었다. 이는 청소년들이 방학기간 동안 학교에 제출해야 하는 과제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시간적으로 여유가 있는 방학기간을 활용하여 공연되는 것은 좋지만, 7월과 8월에 편중되어 있는 현황은 청소년 음악회를 통해 상업적으로 청소년 청중을 겨냥하는 것처럼 보일 수 있고, 음악회 참여가 청소년에게 미치는 음악적 교육의 중요성을 저하시킬 수 있다. 그러므로 음악회를 참여하는 것이 청소년의 음악적 교육에 필요하고 중요하다면, 음악회를 방학 동안에 집중 공연 하는 것 보다 방학이 아닌 기간에도 언제든지 음악회를 참여할 수 있도록 공연 기간이 열려 있을 필요가 있다.

둘째. 국악 공연은 서양음악 공연에 비해 매우 적은 비중을 차지하였

다. 학교 음악교육에서는 국악의 중요도와 비중이 점점 높아지고 있지만, 청소년 음악회에서는 아직 국악이 현저히 적게 공연되고 있는 실정이다. 물론 국악 전문 공연장에서는 청소년 음악회뿐만 아니라 매 월 많은 국악공연이 연주되고 있었지만, 관객들은 주로 일반 공연장을 많이 찾기 때문에 그곳의 공연일정을 쉽게 찾기 어려울 수 있다. 그러므로 특히 국악 공연은 홍보를 잘 해서 많은 청소년들이 국악공연을 참여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또한, 국악을 전통국악, 창작국악, 퓨전국악으로 분류하여 분석한 결과 전통국악에 견줄 만큼 퓨전국악의 횡수가 많았다. 이것은 ‘퓨전’이라는 장르를 통해 다양한 연주구성을 가지고 청소년들에게 더욱 친근히 다가가기 위한 의도라고 생각된다. 앞으로도 꾸준한 노력과 홍보가 필요할 것이다.

셋째. 연주된 성악곡 중에서는 오페라 아리아가 가장 많았는데, 이것은 모두 오케스트라 반주로 협연하거나 피아노 반주와 부르는 형식이었다. 여기에 화려한 무대장치와 오케스트라 반주, 무대의상을 입고 분장한 등장인물이 여는 실제 오페라 공연도 청소년을 위한 오페라 공연으로써 더불어 활성화 된다면 단편적으로 아리아만 감상하는 것이 아니라 ‘오페라’라는 장르도 청소년들에게 친근해 질 수 있을 것이다.

넷째. 연주된 기악곡들의 큰 특징은 같은 곡을 연주하더라도 악기구성에 따라 다양한 연주형태로 편곡되었다는 점이다. 악기의 구성과 특색에 맞춰 편곡된 곡은 익숙하지만 새롭게 느껴져 흥미와 관심을 갖게 한다. 따라서 기악만의 특징을 살려 더욱 다양한 장르의 음악을 다양한 악기로 연주 한다면 기존의 곡이 지겹지 않고 더 흥미로운 연주로 이어질 것이다.

다섯째. 프로그램을 분석한 결과 시대별, 작곡가별, 곡명별 등 각 유형의 특징에 따라 한 쪽으로 치우쳐지는 경향이 많았다. 그렇게 되면 청소년들이 편향적으로 음악을 감상 할 수 있기 때문에, 신중하게 프로그램을 구성해야 할 필요가 있다. 이런 필요성 때문인지 연주회 중에서도 시대별로 또는 작곡가별로 소개하고 연주하는 시리즈 공연이 있었다. 청소년 음악회에서 가장 많이 연주되고 있는 시리즈 공연의 장점을 살려 더욱 다양한 프로그램을 연속성 있게 공연하는 것도 좋을 것이다.

여섯째. 공연후기를 통해 청소년 음악회가 실제로 관객에게 미치는 영향 등을 알 수 있었다. 이런 청소년을 위한 음악회를 실제로 관람한 관객들의 공연 후기를 분석한 결과 음악회가 재미있고, 해설이 있어 이해하기 쉬웠으며 교육적으로도 유익하다는 좋은 평가가 많았다. 반대로 해설이 있었지만 그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한 경우 아쉬웠다는 의견이 있었고, 부족한 청소년들의 관람태도를 지적하는 내용도 많이 있었다. 혼자서 녹음된 음악을 자유롭게 듣는 것이 아니라 공연장에 직접 참여해서 관람할 때는 여기에서 필요한 에티켓을 배우는 것도 교육의 한 부분이기 때문에 필요하다. 긍정적인 의견이 많았던 만큼 아쉬웠던 부분을 개선하여 더욱 유익한 음악회로 발전하길 바란다.

연구자는 청소년을 위한 음악회 현황과 프로그램들을 일부 분석하였지만, 지역을 제한하지 않고 전체적인 청소년 음악회 실태와 공연내용을 조사하는 후속연구가 필요하다. 또한 음악회 현장에 직접 참여하여 실제 연주회 현황을 조사하고, 청소년들과 관객들에게 설문지를 돌려 좀 더 현장감 있는 연구도 중요할 것이다.

참고문헌

<학위논문>

- 김정연(2010). 문화콘텐츠로서의 클래식 음악에 대한 연구.
서울: 상명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 박은미(2007). 청소년의 인성형성에 대한 음악 감상 교육의 역할 연구.
서울: 국민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 서승미(2005). 청소년의 음악 감상 행동에 관한 연구.
서울: 이화여자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 원혜림(2008). 수도권 지역 시립합창단의 청소년을 위한 연주활동 연구.
서울: 이화여자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 이경혜(2008). 청소년 음악회 조사연구-서울·경기지역을 중심으로.
서울: 이화여자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 이수경(2004). 청소년 음악문화의 질적 향상을 위한 방안연구.
충북: 한국교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 이지연(2008). 음악교육이 인격형성에 미치는 영향 : 청소년 시기를 중심으로. 전남: 목포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 전유진(2004). ‘번스타인 청소년 음악회’의 음악설명방식 고찰.
충북: 한국교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 함정례(2007). 구성주의 관점의 ‘해설이 있는 음악회’ 연구: 유라시안 필하모닉 오케스트라 사례를 중심으로. 서울: 명지대학교 문화예술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단행본>

- 민은기·김대호(2002). **한국 청소년의 음악교육 실태**. 서울: 서울대학교음악대학 서양음악연구소
- 박진홍(2007). 청소년 음악회의 진단과 활성화. **음악과비평 제5권 제4호**.
- 전정임(2002). 청소년 대상 음악회, 지속적 노력 뒷받침되어야. **문화예술, 이천이년 구월호**.
- 홍세원(2002). **서양음악사**. 서울: 연세대학교 출판부
- Peter Kivy, 장호연·이종희 역(2000). **순수 음악의 미학**. 서울:이론과실천
- L. Bernstein, 김미애 역(1991). **음악의 즐거움을 찾아서**. 서울:삼호출판사
- Rudolf E. Radocy & David Boyle, 최병철·방금주 역(2002). **음악심리학**. 서울: 학지사

<홈페이지>

- 영음예술기획 <http://iyoungeum.com/>
- 훈엔터테인먼트 <http://www.hoonent.com/>
- 예인예술기획 <http://www.yeinarts.com/>
- 극단 영 홈페이지 <http://www.theatreyoung.com/>
- 영산아트홀 <http://www.youngsanarthall.com/>
- 예술의전당 <http://www.sac.or.kr/>
- 세종문화회관 <http://www.sejongpac.or.kr/>
- 고양아람누리 <http://www.artgy.or.kr/>

경기도문화의전당 <http://www.ggac.or.kr/>
성남아트센터 <http://www.snart.or.kr/>
고양어울림누리 <http://www.artgy.or.kr/>
의정부예술의전당 <http://www.uac.or.kr/>
장천아트홀 <http://www.jcah.co.kr/>
국립국악원 <http://www.gugak.go.kr/>
노원문화예술회관 <http://www.nowonart.kr/>
KBS홀 <http://office.kbs.co.kr/kbshall/>
국립극장 <http://www.ntok.go.kr/index.do>
금호아트홀 <http://www.kumhoarthall.com/Home/Main.aspx>
구로아트밸리 <http://www.guroartsvalley.or.kr/>
안산문화예술의전당 <http://www.ansanart.com/>
인터파크 <http://www.interpark.com/>
티켓링크 <http://www.ticketlink.co.kr/>
문화충전200%(문화를 사랑하는 사람들) <http://cafe.naver.com/real21>
브리태니커 www.britannica.co.kr
행동유형 진단 프로그램 DiSC <http://www.idisc.co.kr/default.asp>

Abstract

Survey on the Actual of Concert for the Adolescent

Music Education Major in Department of Education
Sung Shin Women's University Graduate School of Education
Cho eun Kim

The adolescence period is a time when people experience physical growth as well as change and development in self-ego, emotion, and values as well. The various musical activities the students experience during this period helps the formation of a mature and harmonious personality, direct musical enjoyment and musical experience are important through not only school classes but also through concerts outside the classroom. Therefore, this researcher is interested in the "Concert for the Adolescents" and understood the status of concerts and researched and analyzed the program contents.

This study was conducted from January 2010 to December 2010 for a year and it is a study that analyzed and researched the status of the programs of 152 concerts that were held for the adolescents in major concert halls located in the Seoul and the Gyeong-gi Regions. The concert halls were selected among the "main concert halls" introduced by the "Interpark" and "Ticket Rink", the internet booking sites and the concert halls that held many concerts in 2010 when I

searched "Adolescent Concerts" on the internet.

The conclusion is summarized as below.

First, the results of the performance status of concerts for the adolescent showed that 90% were intensively held during the school vacation period of the adolescents. Participation in the concert should be beyond the reasons for vacation homework but we should emphasize the importance of music education of the adolescent and it will be necessary to plan concerts so the adolescent can participate in concerts more during any period not only in their vacation time.

Secondly, there were various programs for the Korean traditional music concerts in order to approach the adolescents in a more familiar way but compared to the western music, the number of concerts were low. With the importance of the traditional music and well planned out promotions, it will be important to allow many adolescents to participate in traditional music concerts.

Third, among the vocal music played, Opera arias were the most and if the actual opera performances activated as operas for the adolescents, then it will not be just enjoying the arias but the genre of "opera" will become more familiar for the adolescents.

Fourth, the results of the program analysis showed much difference according to each type of characteristics such as age, portfolio composition, the title of a musical composition, etc. There were many vocals of the Age of the Romantic and there were many instrumental music of the Romantische Moderne period. Especially, for the

instrumental music, mostly short pieces of music were played and even if they were the same songs, that were performed in a newly arranged form. The Korean traditional music were performed much as fusion traditional music since it is the traditional music of Korea.

Fifth, through concert reviews, it was possible to learn about the effects of music concerts for the adolescents on the audience and the positive side stating that the concert was familiar, fun, and it was great because there was a narrator should be improved and the negative statements stating that it was difficult to enjoy the music well because the admission attitude was disorderly should be improved.

Based on the conclusion of this thesis, I hope that this study is helpful in efficiently creating the concert participation of the adolescent and the musical education through recognizing the concert status for the adolescents and by planning those concerts.